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406-01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수기집



더 많은 색깔있는 꿈을 키우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관련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www.woorichon.kr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수기집



농림축산식품부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수기집

03_발간사

04_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개요

06_농촌현장포럼 개요

첫째 마당: 씨앗을 심다 09_충북 괴산 제비마을

23_경남 창녕 우포늪기러기마을

37_경기 양평 청운 다대마을

둘째 마당: 뿌리를 내리다 53_충북 음성 대실마을

67_강원 홍천 팔봉청삼골들배마을

81_충남 부여 구례울마을

셋째 마당: 꽃을 피우다 97_충북 증평 장이익어가는마을

111_전북 정읍 원오봉마을

125_전남 보성 봉천 메주익는마을

139_강원 태백 조탄마을

153_충북 청원 연꽃마을

넷째 마당: 열매를 맺다 169_전남 강진 청자골달마지마을

183_경기 양평 청운 여물리체험마을

197_충남 보령 장발 은행마을

211_경북 예천 금당실마을

제비가 물고 온 **대박씨** 제비마을



1억 4천만 년 **우포늪이** 간직한 이야기를 풀다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다대마을**



우리마을의 색깔은 **어깨동무**여유 ~



우리 마을의 색깔은 **영차영차**래요 ~



우리마을의 색깔은 **솜씨** 아니간 ~



우리마을의 색깔은 **촌스러움**이어 ~



우리마을의 색깔은 **굿거리 장단**이제 ~



우리 마을의 색깔은 **콩 타작 소리**여 ~



우리마을의 색깔은 **아삭아삭** 이드래요 ~



우리마을의 색깔은 **소통** 이구면유 ~



우리마을의 색깔은 **사람꽃** 이랑께 ~



우리 마을의 색깔은 **엄마의 체온** 이에요 ~



우리마을의 색깔은 **선물** 이에유 ~



우리마을의 색깔은 **옛날이야기** 아인교 ~

목 차

발간사

농촌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산업이나 관광 및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고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보성의 메주익는마을은 인근 순천에 주암댐이 건설되어 80%의 농지가 수몰되고 주민들은 희망을 잃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친환경 콩을 재배하고, 버려졌던 메주방을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자긍심은 올라가고, 마을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충남 부여의 구례울마을은 유명한 산이나 특산물도 없고, 주변에 관광지도 없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구례울마을에서는 공기와 같아 아무도 보지 않던 벚짚과 이를 활용한 짚풀공예를 마을발전의 동력으로 바꾸었습니다. 짚풀공예 체험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공예품을 판매하는 마을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짚풀처럼 탄탄히 엮여진 마을주민들의 단합은 그 무엇보다 큰 성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농산물, 생태, 경관, 문화 등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감성이라는 옷을 입혀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을의 발전, 주민의 행복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기 위해 꿈과 열정을 바쳐 우리 마을을 “색깔있는 마을”로 만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꿈꾸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꿈은 우리 농촌을 농촌 주민이 도시민과 화합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곳으로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꿈을 합쳐 “행복한 농업인”,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김현수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란 무엇인가요?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란 농촌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만들어가는 운동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숨은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는 데서 시작해 농작물 생산과 가공, 유통에서부터 도·농 교류, 농촌 생활여건 개선에 이르기 까지 마을만의 특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촌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하여 농촌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색깔있는 마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기초여건 정비를 통한
‘생활 기반형’ 색깔있는 마을



농업 생산 위주의
‘농업형’ 색깔있는 마을



농수산물 유통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유통가공형’ 색깔있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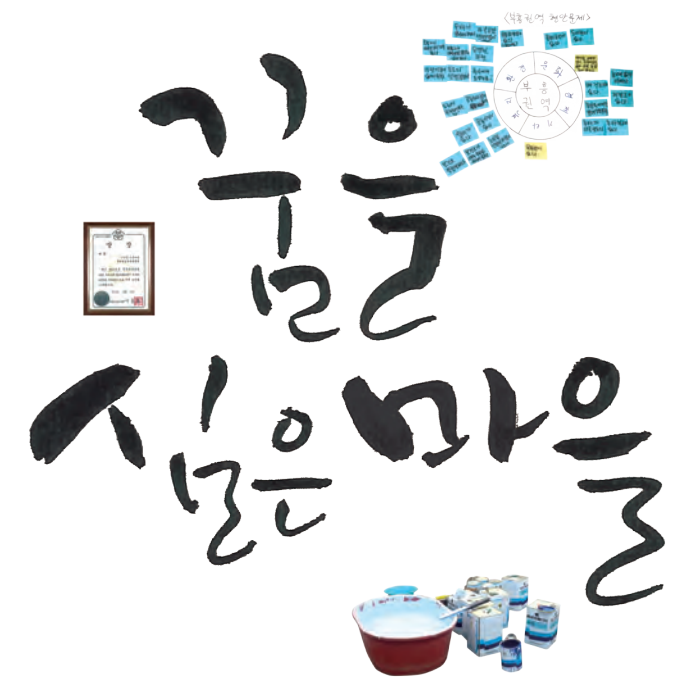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농외 소득을 증진하는
‘도·농교류형’ 색깔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생활 만족형’ 색깔있는 마을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현장포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09_충북 괴산 제비마을
- 23_경남 창녕 우포늪기러기마을
- 37_경기 양평 청운 다대마을



“얼마 전에 백봉초등학교 꼬맹이들까지 다 나와서 그린 마을 벽화 있잖유. 지난 주말에 봤더니 세 높 네 높 이 자전거 타고 와서 손가락으로 가르키고 그러대유. 지는유 다른 거 안 바래유. 고갯들이 크면 우리마을을 다시 한 번 와서 쳐다볼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미루나무도 심는다고 한 거에유. 예전모습 그대로 말여유. 60년대 풍광이 살아있는 전원마을.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유”

- 충북 괴산 제비마을 김만춘 이장

마을에
 나뭇잎을 배다랑 한
 제비
 수북리산
 제비마을



꼭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충북 괴산 제비마을에 낭보가 전해졌다. 2013년 8월 8일, 1차 농촌현장포럼을 하기 위해 모일 때만 해도 제비마을 주민들은 몰랐다. 100일 뒤에 마을이 현장포럼 대상으로 선정될 줄은. 짧은 기간에 이뤄낸 쾌거. 운이 좋다고 여길 수 있지만 기적이 아니다. 사실 주민들은 그전부터 땀방울로 씨앗을 심어왔다. 그 씨앗이 주민들 바람을 머금고 싹을 틔운 것이다.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제비가 사는 청정마을, 10대에서 70대 동문이 같은 추억을 공유하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일대



괴산 제비마을

제비가 물고 온
대박씨
제비마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5년만 가면 그 뒤에 누가 농사짓나. 보통 문제가 아니다”

부자 ‘부(富)’, 일 ‘흥(興)’, 부흥리. 마을의 이름 덕인가. 1960년만 해도 부흥권역은 인삼 재배로 전국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중 하나였다. 인삼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깨지면서 마을은 정체되었고 마을의 풍경은 세월의 더께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그 풍경 속에 살던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거나 풍경과 함께 고령이 되었다. 김만춘 부흥5리 이장(55)은 당장 마을의 5년 뒤가 걱정이었다.

대한민국 농촌이 큰일 났다. 5년만 가면은 쌀 한 가마니가 30만 원은 할 것 같다. 농촌은 작년 다르고 올해 또 다르다. 농사짓는 양반들 나이는 72,3세. 눈 어둡고, 자기 땅이 몇 번지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1,350명까지 있던 학교가 이제는 학생 수가 50명도 채 안되어 통폐합 대상 학교가 된단다. 그 많던 학생들이 지금 31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숫자다. 5년만 가면 그 뒤에 누가 농사짓나.



63회 동안 졸업생 3,434명을 배출해 낸 백봉초등학교. 제비마을 주민들은 모교이자 마을의 상징인 학교가 사라지는 것만 가슴 아픈 것이 아니다. 이처용 변영회장(59)은 언제부턴가 마을주민들이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해마다 있던 마을잔치가 2년 전부터 푹 끊어졌다. 바쁘고, 돈도 나가는데 왜 하나며

각 마을 이장들조차 다음으로 미뤘다. 예전 같질 않구나. 마을이 잘 살려면 주민들끼리 푹푹 뭉쳐 단합해야되는데... 부흥리가 '부흥'했던 시절이 그립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가 넘는 제비마을. 마을주민의 반이 노인이다 보니 지역 경제적으로 자립이 미약하다. 귀촌자는 있는데 교류가 적고, 무엇보다 마을의 특색이 없던 것도 마을이 답보상태인 이유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의 눈과 생각을 번쩍 뜨이게 하겠쥬?”

그러던 중 2013년 1월 1일자로 부흥민원실에 양문호 실장(51)이 부임 해왔다. 마을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그의 눈에 제비마을의 낙후된 시설과 독거노인이 어렵게 사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알고 지내던 농촌 개발사업 전문가를 초빙해 마을을 재생시킬 방법은 없는지 모색했다. 강동대학교 건축학과 김승근 교수였다.

그가 알려준 정보대로 제비마을 이장단과 마을주민 15명은 매주 수요일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도시대학을 수강했다. 8주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른바 '마을 만들기' 관련 수업이었다. 차비와 식비는 각자 해결했다. 3월 말부터 5월 초, 농사일에 손이 많이 가는 시기였지만 8회 동안 빠짐없이 참석했다.

“농촌개발사업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마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현장포럼. 마을 전체가 함께할 수 있다는데요. 우리마을도 신청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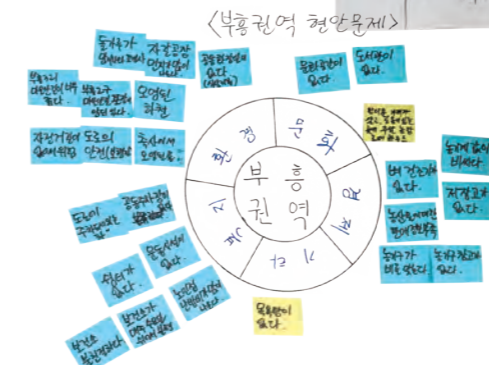
“맞어유 실장님. 저희만 들을 수 없쥬. 마을을 변화시키는 게 리더 몇 명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유.”

이장단은 도시대학을 통해 주민들이 의지만 있으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동안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들이었다. 농촌 현장포럼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리신호 센터장과 정다영 팀장, 주인상 퍼실리테이터와의 만남을 앞두고 현장활동가와 마을리더의 역할을 분담했다.

부흥민원실의 양문호 실장이 현장활동가를, 강구주 부흥2리마을이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이처용 추진위부위원장과 김만춘 추진위원이 힘을 보탰다.

“농촌개발사업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마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항목	내용
목적	정리조 위치
대상	모든 가구 정하고 생계 부도 못 알아
목적	수입 2명 받기 및 취업 환경 조성
참가대상	정리조 비 생계가 못 하는 생계
계획하기	집행위원 총비리는 5명 : 마을리더(리장, 주민 2명, 15.이 생활개선) 홍보 : 가우리로 방송사명. 지원모집: 정리조 자살생각 가진 주민 리 비 : 미지 추진방법: 1. 마을리더가 부부부 파수 2. 마을리더가 마을리더



“우리마을이 부흥했던 60,70년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싫어유”

“8월이면 한참 바쁜시기예요.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려면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하셔야죠. 알겠습니다. 8월 8일 오후 7시에 부흥민원실 강당에서 1차 현장포럼을 진행하죠.”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양문호 현장활동가의 긴밀한 소통으로 8월 8일 첫 현장포럼을 진행했다. 70여 명의 주민이 부흥민원실을 가득채웠다. 2차 포럼 역시 3주 뒤 같은 시간에 개최되었는데 포럼이 끝나는 11시까지 주민들은 옛 ‘부흥’을 기대하며 포럼에 참여했다. 주민들로서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백봉초등학교를 살려야쥬.”

“압향천 따라 미루나무를 심자구유. 우리마을에 옛날에는 미루나무가 많았는디.”

“나는 우리마을이 부흥했던 60,70년대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싫어유.”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보태질수록 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할지 가닥이 잡혔다. 조 구성을 할 때도 처음에는 부흥권역에 속한 문당리, 백봉리, 부흥리 등 친한 사람들끼리만 뭉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주민들은 융합했다.

“마을을 변화시키는 게 리더 몇 명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유”



잠자고 있던 마을주민이 운동화끈 다시 졸라매고 뛰는 것

“얼마 전에 백봉초등학교 꼬맹이들까지 다 나와서 그런 마을 벽화 있잖유. 지난 주말에 봤더니 세 늙네 늙이 자전거 타고 와서 손가락으로 가르키고 그러대유. 지는유 다른 거 안 바래유. 고것들이 크면 우리마을을 다시 한 번 와서 쳐다볼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미루나무도 심는다고 한 거예유. 예전모습 그대로 말여유. 60년대 풍광이 살아있는 전원마을.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유.”

김만춘 추진위원과 이처용 부흥마을번영회장과는 백봉초등학교 선후배 사이. 후배 김만춘 추진위원의 바람을 듣고 이처용 회장은 불과 7~8개월 전, 마을을 위해 뒀가 일을 해보자고 처음 뭉쳤던 때를 회상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도시대학과 현장포럼을 통해 눈을 뜬 것이다. 반신반의 했던 것은 사실이다. 마을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현장포럼을 하면서 서로가 마음이 열리는 것이 느껴졌다. 얼마 전엔 2년 동안 끊긴 마을 화합잔치를 성대하게 열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백봉초등학교 운동장에, 마을 잔치 개최 이래 최대인원인 500명이나 모였다. 마을의 변화가 시작됐다. 잠자고 있던 마을주민이 운동화끈을 다시 졸라매고 뛰는 것이다.

첫 현장포럼을 실시하고 100일째 되는 11월 22일, 마을 현장포럼 대상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포럼에 참여하지도 않고 마을일에 무관심하던 이들도 “뉘가 되긴 되나보다”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마을화합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마을에 작은 잔치가 또 열렸다. 경로당으로 쓰였던 곳이 마을공동홈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독거노인 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머지않아 압향천 제방길에는 가로수가 식재될 예정이고, 마을입구 진입로에는 꽃길을 조성할 것이다. **마을주민 스스로가 세운 계획과 과제들이라 함께 실천하고 있다.**

마을 곳곳에 제비등지가 있어서 지어진 이름, 제비마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부흥마을에 사는 제비들이 마을주민들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좋은 소식을 안겨준 것이 아닐까. 흥부에게 보물이 담긴 박씨를 물어다 준 제비처럼 말이다.



제비마을

농촌현장포럼 진행과정

1차 2013.8.8



2차 2013.8.29



3차 2013.9.26



4차 2013.10.10



괴산 제비마을의 수상포인트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리신호



저녁 7시

올해 농촌현장포럼은 준비기간이 짧았다. 농한기보다 농번기에 주로 이루어졌다. 생업 때문에 현장포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비마을은 현장포럼을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진행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주도 사업 발굴 및 실천을 잘 이룰 수 있었다.

농촌현장포럼 운영팀



제비마을이 농촌현장포럼을 시작한 후 두 달만에 성공적으로 포럼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민·관·학으로 구성된 '제비마을 부흥권역 농촌현장포럼 운영팀'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성팀은 농촌현장포럼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했으며,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농촌개발사업과 마을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6070년대

제비마을은 정미소, 이발소, 공소, 상가와 옛 농협창고, 골목길과 시장터 한쪽 구석의 공중변소 등 60,70년대 모습을 간직한 옛 거리 풍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제비마을은 현재 보존되어 있는 풍광을 유지하되 슬레이트 지붕 교체와 담장 정비 등을 병행하여 마을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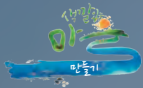
괴산 제비마을



- ▶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일대
- ▶ 수상내역 '13년 농촌현장포럼 운영 우수사례 대상
- ▶ 마을대표 강구주 추진위원장
- ▶ 우수사례 제목 부흥권역 공생·공존 마을공동체 회복
- ▶ 현장포럼 운영팀 구성원
 - 현장활동가 양문효
 - 추진위원장 강구주
 - 추진위부위원장 이처용
 - 추진위원 김만춘
 - 부흥마을만들기 컨설턴트 박해숙
 -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리신호
 -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팀장 정다영
 -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퍼실리테이터 주인상
- ▶ 가구 수 574가구

포기함 마음
 큰에서
 되는마음으로
 거경남
 창녕
 O
 두포포
 기근거기
 마을





생태보전지구 마을. 모르는 사람은 '이 멋진 풍광 속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하겠지만 마을주민들은 불편하다. 우포늪이 있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재마을 주민들도 그랬다. 마을 공사를 할 때도, 고기잡이 배를 탈 때도 지켜야할 것이 많다. 주민들은 마을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채 운명처럼 주어진 조건 안에서 살아왔다. 운명을 개척한 것일까. 그러던 마을이 마을 변화에 앞장서더니 농촌현장포럼 전국 2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1억 4천만 년의 신비를 품고 있는 우포늪, 우포늪을 품고 있는 기러기마을

우포늪 기러기마을





“이장님. 나이 드시고도 힘들게 계속 고기만 잡으실 수 없잖아요”

“일하는 데 방해만 된다안가요. 그거 할 시간에 가물치 한 마리라도 더 잡아 팔면 그거 얼마데. 우리마을 주민들은 헐 시간이 없다캐도 그라네. 시간이 돈이여, 돈.”

작년부터 군에서 자꾸 전화오고 찾아와가 고마 귀찮아 죽겠다. 마을 만들기 하모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우리마을서 허긴 물 하노. 농지도 묶여 있고, 안 되는 거 투성인데. 그린벨트처럼 풀릴 희망이 있는 것도 아이고. 뭘 자꾸 해라왔는 건지 나 참.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장재마을의 성영길 이장(54)은 창녕군 농업정책과의 하정옥 주무관(33)의 연락이 탐탁치 않았다. 하지만 하 주무관은 포기하지 않았다. 창녕군 자체에서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 행복 마을 가꾸기 3단계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로서는 소기의 성과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우포늪기러기마을은 2012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1단계에서 ‘루럴-20(Rural-20,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한 프로젝트로 우리나라의 경관과 전통이 살아있는 농어촌 체험마을 20곳을 선정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 선정되었다. 반응은 좋았지만 막상 마을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었다. 그 시간을 생업인 내수면어업에 쏟는 것이 주민들에겐 유용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마을이 돈이 없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도 퍼뜨 뛰어들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장님, 나이 드시고도 힘들게 계속 고기만 잡으실 수 없잖아요.”

“거 참, 그 아가씨, 자기 부모일도 아이면서 참말로 끈질기시네. 밀져야 본전 셈 치고 한 번 하십시오. 빨리나 끝내 주이소.”

“환경은 그대로 뒀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는 마을 아인교”

2013년 8월 30일,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김영주 센터장을 비롯해 주진용 퍼실리테이터, 은희장 컨설턴트가 마을을 찾았다. 마늘과 양파를 심는 이모작 시기라 마을 주민들은 시간을 쪼개서 회관을 찾았다.

“여기는 땅 쪼매 있는 거 다 묶어뿌고, 환경은 그대로 뒀야하기 때문에 건들지 못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데 마을이 돈이 없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도 퍼뜨 뛰어들지 못한 게 사실이고.”

고기 가는 길을 안다고 할 정도로 고기 잡는 실력이 뛰어난 박한덕(64) 씨는 마을에서 2대째 내수면어업을 하고 있다. 우포늪에서 내수면어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추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 내수면어업을 생업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박한덕 씨 세대가 마지막이다. 주진용 퍼실리테이터의 첫 만남에서 박한덕 씨는 생태보전지구인 마을의 불편함을 털어 놓았다. 성용길 이장도 거들었다.

“뭉뚱, 멧돼지가 잘 사는 마을 아인교. 멧돼지가 들어와 밟이고 논이고 다 헤집어 놔도 생태보전지구가 돼가 썩어서 죽이지도 못하고, 우포늪 때문에 묵고 살 것도 정해져 있어예.”

“잘 되는 마을은요, 자원이 많아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민들이 단합이 되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마을이 잘 되는 마을이예요. 장재마을 주민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큰 색깔을 명확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예요. 주민분들이 변하시면 굉장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차 현장포럼 시간, 마을주민들은 주진용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마을의 테마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인원이 적으면 아무래도 아이디어도 적게 나오고 실천 과제의 질도 떨어질 수 있는데 1차 때보다 참여 인원이 늘었다.

“내가 그린 게 채택이 되니깐 마을에 애착심이 생기네”

“솔직히 우리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보니 몰랐는데 자원을 찾다보니 보이고 그라네예. 우리 마을에 쪽배 만드는 기술자도 둘이나 있어예.”

그 전에는 인자 우포늪이라키는 데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막연했다. 우포늪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마을이 이 마을이다. 그런데 다른 마을에서





우수사례 주기집 - 창녕 우포늪기러기마을



주민들은 포기한 마을 대신, 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우포늪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인식했다.

이 우포늪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존심이 상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에서 느낀 것이 그 마을은 지원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이 발전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사업의 실무역할을 담당하는 오상훈 사무장(42)은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변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특히 3차 현장포럼인 선진지 견학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얻고 돌아왔다. 마을주민들 변화에 보람을 느낀 사람은 하정욱 주무관도 마찬가지였다.

8월부터 10월까지가 제일 바쁜 시기라 현장포럼 중간에 간다하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끝까지 참여를 잘 하셔서 놀랐다. 특히 어떤 할머니는 이때까지 마을을 위해서 뭐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본인이 그린 것이 올라가서 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여주고 하니까 마을에 애착이 가신다고 하셨다.

우포늪기러기마을의 강점도 우포늪, 약점도 우포늪

“여가 모자라가 페인트 더 사왔는데 인자는 페인트가 남아뻘네.”
 “버리든 뭐하노. 남은 김에 저쪽까지 단디 칠하자.”
 “칠하다 모자라든 또 사러갈까?”
 “그까이꺼 마을 다 칠해뿌자 마. 이래 해놓으니 이쁘고 좋아네.”

현장포럼을 통해 새 이름으로 태어난 기러기마을 주민들. 1차 현장포럼 때만 해도 30%만 모였던 마을주민들은 과반수가 참여하는 현장포럼으로 마무리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니다. 포럼이 끝나자마자 마을주민들은 스스로 우포늪 지킴이로 나섰다. 우포늪과 연계한 생태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우포늪을 청소하고 쪽배도 만들었다. 마을벽화도 꾸미고 체험관도 만들었다.

“쪽배 만드는 기술자도 들이나 있어예”



“이장님. 우리마을이 농촌현장포럼 전국 2등 마을이라예.”

“참말인교? 정육 씨가 발표를 잘 했을 때부터 내 알아봤다.”

“아입니다. 워낙에 마을분들이 현장포럼 통해서 많이 변하셔가 점수를 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진용 퍼실리테이터가 느낀 기러기마을의 첫인상은 ‘포기한 마을’이었지만 끝인상은 ‘되는 마을’이었다. 그가 생각할 때 기러기마을의 강점과 약점은 같았다. 바로 ‘우포늪’이라는 것. 때문에 선택은 늘 마을주민의 몫이었다. 주민들은 포기한 마을 대신, 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우포늪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마을은 변화의 물꼬를 텃고, 농촌현장포럼 2등 마을로 선정되는 등 자신감도 얻었다. 성공을 부르는 단어가 있다면 ‘의지’와 ‘자신감’이 아닐까. 우포늪기러기마을 주민들은 이미 성공의 열쇠를 가진 셈이다.

주민들은 포기한 마을 대신, 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우포늪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인식했다



우포늪기러기마을

농촌현장포럼 진행과정

1차 2013.8.30



2차 2013.10.4



3차 2013.10.24



4차 2013.10.31



우포늪 기러기마을의 수상포인트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김영주

자신감

3차 현장포럼을 통해 우리 마을에 있던 애물단지인 사실 보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기러기마을 주민들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던 마음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었다. 복잡하고 손도 못 댔던 일을 술술 풀리게 하는 힘은 우리는 못할 게 없다는 '자신감'이었다.



현장포럼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러기마을에서는 마을 발전을 위한 내부 자체적인 공동체가 없었다.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주민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마을 발전에 대한 계획을 공론화하는 시간은 '마을사업'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근본적인 의식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다.



희망

시명감

기러기마을은 집합식 이해교육 위주로 추진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동화 현장포럼을 실천했다. 현장활동가와 퍼실리테이터, 전문가가 함께 마을을 직접 돌아보고 마을의 현황을 파악했다. 이에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마을의 장단기적인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했다.



경남 창원군
하정옥 주무관

우포늪 기러기마을



- ▶ 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안리 일대
- ▶ 수상내역 '13년 농촌현장포럼 운영 우수사례 최우수상
- ▶ 마을대표 성영길 이장
- ▶ 우수사례 제목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 ▶ 현장포럼 운영팀 구성원
 - 현장활동가 하정옥
 - 마을리더 성영길
 -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교수 김영주
 -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퍼실리테이터 주진용
 - 경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은희창
- ▶ 가구 수 42가구

치유카운슬링
 희망을
 짓는 마을
 경기농민대학
 나래마을



마을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에 걸린 후부터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마을 주민들은 마을주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겼다. 모이면 나누는 대화 주제도 새로워졌다. 마을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제가 새롭다 보니 마을도 새로워진 것 같다. 아울러 마을에 희망도 생겼다. 현수막에 쓰인 문구가 그렇게 만들었다. '축 201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현장 포럼 다대마을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일대

청운 다대마을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열정이 만난 마을, 자연도 마을주민도 꿈꾸기 시작하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마을에 색깔을 입혀 분위기를 바꿔볼까”

2013년 1월, 다대마을의 이장이 되었다.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장이라니. 한편으로는 부담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었다. 직접 기른 옥수수며 감자를 댁에 가져가시기 전에 우리집에 두고 가시는 정 많은 어르신들이다.

3년 전 큰 병에 걸린 후 내가 또 일을 할 수 있을까. 의기소침해졌다.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집에 있었더니 어르신들이 집밖으로 불러내셨다. 밖에서 움직여야 낫는다고. 마을에 온 지 20여 년이나 됐지만 밤 늦게 퇴근하다보니 마을일에는 관심이 없던 터였다. 그런 내가 마을일을 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전 이장님들이 모아둔 마을관련 서류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래, 이왕 시작하는 것. 마을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리주항(59) 이장이 경기 양평군 다대마을의 대표가 되고 난 후 마을은 조금씩 변했다. 30여년 사진관을 운영해 온 그가 마을을 위해 처음 한 일은 마을의 역사를 사진으로 남기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마을청소가 있다고 방송하면 4명만 모였다. 마을에 65세 고령인구가 40%를 감안해도 이진 아니다 싶었다. 마을모임에 나오는 주민에게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했다.

소문을 듣고 조금씩 모이는 수가 늘었다. '내가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리 이장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현장포럼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발로 뛰다가 알게 된 일이다.



마을 발전에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라...
그래,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해보자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현장포럼? 마을 발전에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라... 그래,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해보자. 마을에 알록달록 예쁜 벽화가 그려지면 마을환경이 달라지고 분위기도 바뀌겠지.

마을 만들기 전문가와의 만남

“서울대 노용식 박사라고 합니다. 리주향 이장님 맞으시죠?”

“서울대 박사요?”

“네, 다대마을 농촌현장포럼을 신청하셨지요? 군에서 연락받고 이장님께...”

“아뇨, 그런 적 없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이 이렇게도 진화하는구나. 서울대박사가 일개 마을이장한테 전화를 걸 일이 뭐람? 우리마을에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그때 군에서 전화가 왔다. 신청했으면서 왜 그런 적 없다고 답했냐고. 내가 신청한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가 마을의 담장을 색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때 알았다.

노용식 총괄계획가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자랑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센터와는 달리 석·박사급 이상의 전문가

한 사람이 한 마을을 담당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진행할 수 있다. 노용식 총괄계획가가 담당하는 마을이 양평의 다대마을이라고 들었을 때 그는 마을을 답사하기 위해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그런 적 없다는 답을 들었다.

지금은 재밌는 에피소드지만 그때는 많이 당황했다. 사기꾼인 줄 알았더니. 농촌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마을을 찾았다. 마을에는 마을주민과는 무관하게 화전민옛터를 복원한 청운골 생태마을이 있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4km 떨어진 옆마을은 다대마을과 같은 조건에서 일찍이 체험마을을 운영해 연간 40만 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다.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과 흑천이라는 유용한 하천이 있다는 것 등을 조사한 후 본격적으로 현장포럼 일정을 짰다.

“양평군 관광진흥과 농촌관광팀의 홍승필입니다. 다대마을 현장포럼 현장활동가로 마을주민 여러분과 함께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것인데요, 다대마을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닌데 모이신 분들은 꽤 적네요.”

다대마을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닌데
모이신 분들은 꽤 적네요



2013년 9월 26일, 다대1리 노인회관에서 1차 현장포럼이 있었다. 농촌 관광팀에 몸 담고 있으면서 양평군의 여러 체험마을을 다녀왔다. 성공한 마을도 있고 실패한 마을도 있었는데 다대마을 주민들께 실패한 마을이 되지 않으려면 주민들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2020년을 내다보는 희망찬 마을로

현장포럼에 참여한 박관용(67) 씨는 리주향 이장이 마을의 대표가 되기 전에는 마을에 이런 시간이 만들어질 지 상상도 못했다.

1차 현장포럼을 하면서 이런 게 다 있구나 싶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으니 우리마을엔 이게 필요하다 여겼다. 이장님을 따라 힘닿는 데까지 협조를 할 생각이다. 2013년, 2014년 마을이 아니라 2020년을 내다보는 희망찬 마을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다대마을의 퍼실리테이션을 맡은 최성준 퍼실리테이터는 2차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주민들과 마을의 자원을 발굴했다. 마을공동 소유의 토지와 배, 은행, 꿀주, 토마토 등은 마을의 유형자원에 속했고, 사진작가, 건축토목 전공자, 벚꽃공예자, 수지침을 잘 놓는 스님, 현직 교감선생님은 다대마을이 가진 인적자원이었다.

현장포럼이 무엇인지 모르고 참여한 마을분들은 처음 뵈었을 때 의문에 가득찬 눈빛들이었다. 자원찾기를 할 때는 자신없어 하시고 서로 눈치만 보셨다. 그러다 차츰 팀장을 정하고 조구호를 외치면서 소년소녀 같은 모습을 보이셨다. 연령층대가 높아 걱정했는데 그림도 잘 그리고 발표도 잘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3차 포럼으로 체험마을 우수사례지와 국내 최대 육묘업체를 방문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동과 교육까지 소요되는 12시간도 마다하지 않았다. 선진지 견학에서는 마을주민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왔다. 마을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다대마을은 선진지 마을보다 훌륭한 조건을 갖춘 듯했다. 육묘업체에서는 마을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작목 조안을 듣고왔다. 3차 포럼에서 마을의 자원을 발굴한 경우다. 3차 포럼이 끝난 후 마을주민들은 작목반을 꾸리자고 입을 모았다.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

“홍승필 현장활동가님. 발표 연습하시는 것보고 감동 받았습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셔서 마을주민인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 말씀요. 이장님의 열정이 마을주민들에게 옮겨졌는지 마을분들의 기운이 그대로 전해져서 저는 자신이 있었습시다.”

본인이 신청한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현장포럼이 마을 담장에 색깔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리주향 이장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다대마을 곁에는 노용식 총괄계획가를 비롯하여 마을의 사례를 많이 보아온 홍승필 현장활동가와 최성준 퍼실리테이터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시작이 반이다. 다대마을은 이제 한 단계씩 마을사업 계획을 세우면 된다. 확신이 없던 것도 '함께'여서 가능했는데 확신까지 갖춰졌으니 나머지 반은 성공의 자리다. 다대마을이 '고령화 마을'이 아니라 마을주민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장수마을'이 되길 바란다.



현장포럼이 무엇인지 모르고 참여한 마을분들은 처음 뵈었을 때 의문에 가득찬 눈빛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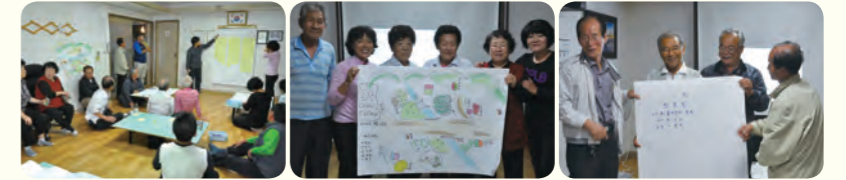
다대마을

농촌현장포럼 진행과정

1차 2013.9.26



2차 2013.9.27



3차 2013.10.22



4차 2013.10.31



청운 다대마을의 수상포인트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
노용식 총괄계획가



경기 양평 다대마을이 농촌현장포럼 우수 마을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경기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했다. 현장포럼의 운영은 센터에서 위촉한 3명의 농어촌 전문가가 1팀이 되는 마을별 전담팀이 맡았다. 전담팀의 위촉은 사후관리가 가능해 현장포럼 후에도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전문가팀

Step by Step

다대마을은 농촌현장포럼을 통해 행정청의 행정처리 토의가 아니라 마을 자체 문제를 행정청에 건의하는 민주적 과정을 구현했다. 마을자원을 토대로 사업다각화 방안과 사업연계, 지역연계 등을 통해 사업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했다. 한걸음부터 취할 수 있는 다대마을의 Step by Step 전략으로 1사1촌, 1교1촌 맺기와 특화품목 작목반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다대마을은 인적자원의 스펙트럼이 넓다. 총괄계획가와 퍼실리테이터, 현장활동가는 물론이고 마을에는 사진가와 경찰공무원, 건축토목전문가, 경찰퇴직자, 육군대령 전역자, 벼짚공예자, 현직 교감, 수지침 스님처럼 다른 마을에 비해 고학력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마을의 우수한 인적자원은 마을의 산업 간 융복합과 지역 간 연계를 통해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힘이 되고 있다.

인적자원





재밌는 게 우리마을에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원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머리를 모았다.

“자 여기에 자기가 제일 잘 하는 거 한 번 써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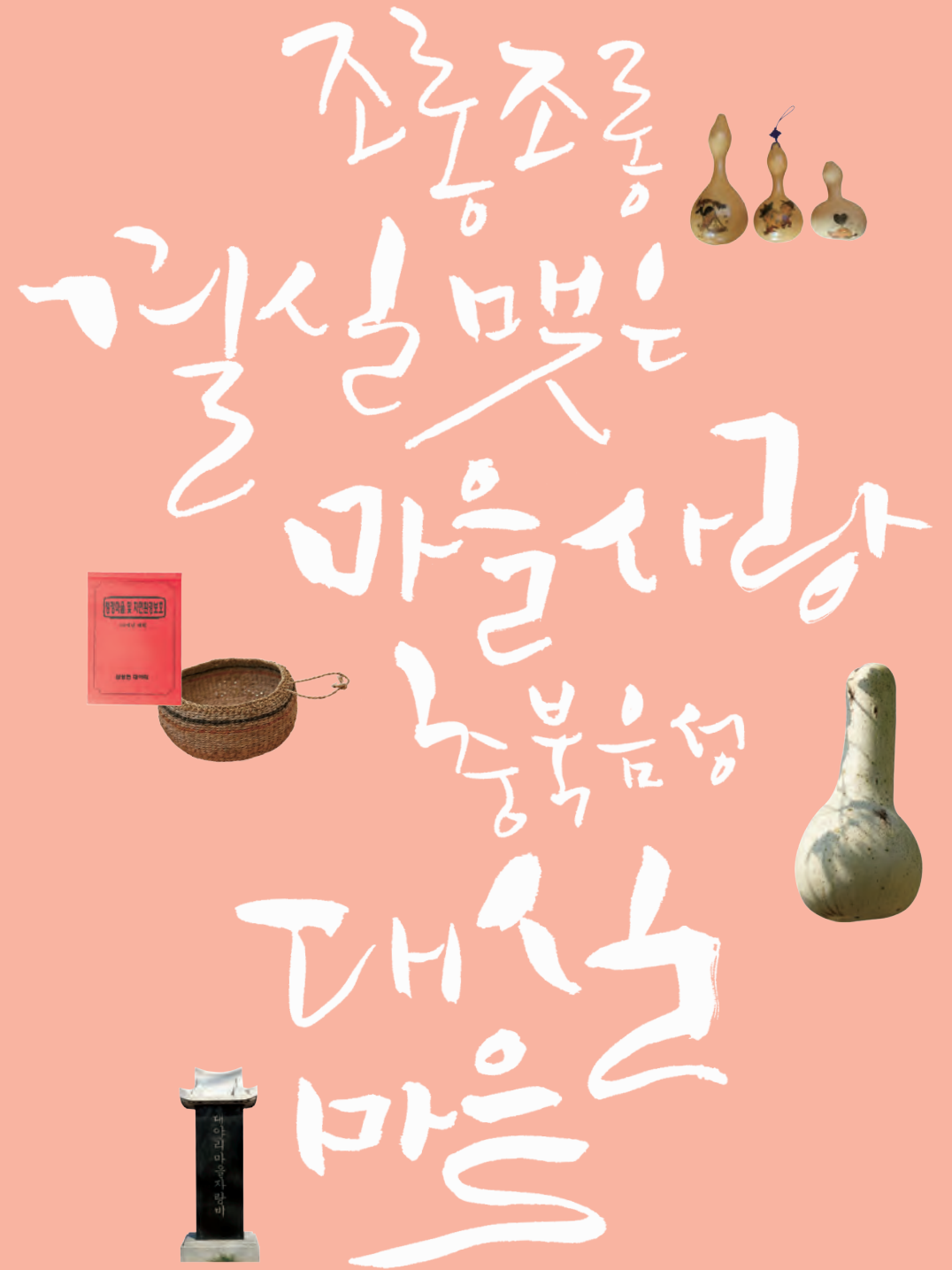
“나는 지붕에 이엉을 잘 얹어”

“맞어유, 순이네 고추장, 된장은 정말 우리만 먹기에 아까워유.”

“나는 어릴 때부터 짚으로 뒹 엮는 거는 잘 한다고 그러긴 했는데.... 것도 자량이 되는 건지 모르건네유”

한 분 두 분씩 이야기를 보태다 보니 우리 마을에 숨겨 좋은 양반들이 많았다.

- 충남 부여 구례울마을 최흥기 위원장



똑딱똑딱. 2013년 10월, 충북 음성군 대실마을 회관 앞에 체험관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12월이 되면 체험관이 준공되고 대실마을은 본격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해 10월, 1차 현장포럼을 실시했으니 1년 2개월만이다. 대실마을이 변화를 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2년부터 자체적으로 마을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왔다. 준비된 마을이라 뭐가 달라도 달랐다.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 일대

큰 계곡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대실마을, 큰 마음 가진 사람들의 정이 깃들다

음성 대실마을



우리마을의 색깔은
어깨동무 여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정중구 위원장
충북 음성 대실마을

“이제부터 시작이니깐, 잘 한 번 해보자구”

“잘 해놨드만요. 근디 우리마을도 허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긴해유. 안 그류?”
“그르게. 우리도 10년 전에 마을 발전 계획 짜면서 이런 거 다 해봤자녀. 금방 따라
가지 뭐.”
선진지 견학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 마을 어르신들은 눈빛을 반짝이며 한 말씀씩 했다.
“피곤하진 않아유? 오늘 수고들 하셨어유.”
“피곤허긴 뭐. 이제부터 시작이니깐. 잘 한 번 해보자구.”
일흔이란 나이를 방불케 하는 어르신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언제나 존경해왔지만 오
늘 다시 한 번 느끼는 바다. 마을에 어르신들이 계셔서 든든하다. 위원장으로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말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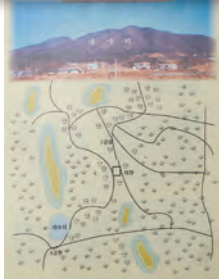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는 포장만 다를 뿐이지. 우리마을은
이미 준비된 마을이나 다름없다. 현장포럼하고 그럴 때도 보니까 이거를 잘 하려면
일단 주민들 의지하고 화합하는 마음자세가 중하다 했는디 우리마을 주민들 마음자세
만큼은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 아니간.

충북 음성군 대야리에 있는 대실마을에는 55가구, 110명의 주민이 산다. 마을 출신
정중구 위원장(58)은 1993년 귀농 후 5년째 이상일을 하면서 요즘처럼 바쁘게 지내본
일이 없다. 정 위원장뿐 아니라 농사만 짓던 마을주민들도 바빠졌다. 2012년 현장포럼
실시 후 마을이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정마을 및 자연환경보호 10개년 계획



체험마을. '이렇다드라' 말만 들었을 뿐 처음에는 마을주민도 정 위원장도 어렵게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 했던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와서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에서는 10년 전 이미 마을을 위해 주민들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흔적이 아직도 마을 곳곳에 남아 있고, 빨간색 표지의 서류가 이를 말해준다.

마을 입구 도로에 늘어선 빛나무는 10년 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식재한 것이고, 미나리도 심고 1천5백 그루의 모과나무도 심었다. 모과 판매 소득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집을 짓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다. 누가 시켜서도,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다.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보자고 마을주민들이 푹푹 뭉쳐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 것. 이름하여 '청정마을 및 자연환경보호 10개년 계획'이다. 절반의 성공이었다. 10년 전만 해도 마을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만들어 실행에 옮긴 곳은 없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달랐다.

“우리는 늦게 시작하는 건데, 특징이 있어야 살아남죠”

“마이산 해발이 472m니까 둘레길로 만드는 건 워터? 제주도 올레길처럼 말이야.”

“맞아유. 여 저수지에 와가지구 낚시도 하잖여유. 그런 것도 자원 아녀유?”

“솔직한 말로 전국에 체험마을이 많잖여유. 우리는 늦게 시작하는 건데, 특징이 있어야 살아남죠.”

“우리도 10년 전에 마을 발전 계획 짜면서 이런 거 다 해봤자녀 금방 따라가지 뭐”



망한 마을도 있고, 성공한 마을도 있었다 망한 마을이 왜 망했는지, 성공한 마을은 왜 성공했는지 참고했다



뭘 하자고 하든 걱정은 없었다. 어르신들이야 말만 하면 맥가이버처럼 딱딱딱딱 다 만들어내는 분들이니까. 다만,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전국에 2천여 곳의 체험마을이 있는데 늦게 시작하는 우리마을에 체험객들을 끌어모으려면 차별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마을의 볼거리들은 좀 있으니까. 보고 그냥 가는 것 말고 머물러서 직접 하든서 즐기는 것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았다. 수년 간 어떡하면 이번 해는 농사지는 게 '또이또이'가 안 되려나, 어떤 농법으로 지어야 팔리는 농작물이 될까 고민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농사짓는 거하고는 다른,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이란 걸 생각해야 하니 쉽지만은 않았다.

방법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망한 마을도 있고, 성공한 마을도 있었다. 망한 마을이 왜 망했는지, 성공한 마을은 왜 성공했는지 참고했다. 체험관을 짓는다고 다는 아니겠구만. 태양광 시설이





마을주민들이 만든, 꿈이 깃든 길이라 해서 180m 길이의 박꽃터널을 '꿈길'이라 이름 붙였다

있으면 장기적으로 사업비를 아낄 수 있겠구만, 체험관 기공을 앞두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박공예 전문가를 초빙해 마을주민들이 박공예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막상 공예 교육을 받다보니 70대 어르신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곤 했다.

체험프로그램 중 하나를 박공예로 정하자마자 정 위원장은 강화도에 가서 종자별로 박씨를 사왔다. 그리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박씨를 심었다. 2년차 박을 심어 이미 1차 수확을 마친 상태. 저장된 박은 체험객이 오면 쓸 예정이다.

마을 앞에 있는 제촌지 부근에는 박공예체험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박꽃터널을 만들었다. 설치에 필요한 자재비만 군의 지원을 받고 철근을 구부리고 조여서 터널을 만든 것은 주민들이 했다. 마을주민들이 만든, 꿈이 깃든 길이라 해서 180m 길이의 박꽃터널을 '꿈길'이라 이름 붙였다.



도시민들에게 쉼터 같은 마을이 되는 것이 꿈

박꽃터널 앞에는 지난 8월에 완공된 연지교가 있다. 제촌지에 핀 연꽃을 가까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다리다. 여름이면 연꽃잎이 4천 평 규모의 제촌지를 가득 메운다. 그 위로 붉고 흰 연꽃이 고개를 살포시 내밀어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의 발길을 붙든다. 하지만 무심하게도 잠시 사진만 찍고 갈뿐이라 체험관이 지어지면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연계할 계획이다.

연꽃이 피는 못 위에 떠 있는 다리라 해서 붙여진 연지교는 다리 기둥이 없는 부교다. 때문에 다리를 건널 때 다리가 언뜻 위에서 둥실둥실 춤을 춘다. 자재비는 군에서 일부, 구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고 설계는 마을의 박광옥 부위원장, 시공은 마을주민들이 했다.

체험프로그램을 정하고, 박을 심고, 터널을 만들고 연지교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진 것은 마을 어르신들 덕이다. 마을일이려면 제 일 제쳐두고 와서 도왔다. 10년 전 세웠던 계획이 절반만 성공한 것이 오히려 자양분이 된 셈이다. 누구하나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꼭 되게 해야지'하는 다짐들이 있었던 것 같다.

체험관 준공을 앞두고는 마을을 감싸고 있는 마이산을 둘러보고 있다. 들레길을 만들어볼 생각이다.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소득만 바라는 것은 아니다.



도시민들이 우리마을에 와서 쉬었다 갈 수 있으면 바랄 것이 없다. 나도 도시 나가 살아봤지만 도시는 경쟁사회다. 주어진 한계를 넘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아등 바등 살아가느라 지친 이들이 여 와서 느린 삶을 경험하면 좋겠다. 둘레길도 돌아보고, 어린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농촌체험도 하면서 말이다.

우리마을이 도시민들에게 쉼터 같은 곳이 된다면 우리마을 주민들도 보람찰 것 같다. 나의 작은 바람이기도 하고. 학생들이야 뭐 여 와서 잠깐 농촌체험한다고 맘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러겠어. 여 와서 놀면서 부모와 선생의 구속에서 잠시나마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거면 되는 거다.

대실마을 마을회관의 보물은 '빨간 서류'다. 10년 전 '청정마을 및 자연보호 10개년 계획'의 내용이 담겨있다. 청정마을 지정이 되게 하려고 마을주민들의 표현대로라면



'별짓 다했었'던 기록이 남아있다. 비록 계획은 실패했지만 사실, 마을의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다.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깨동무하는 마을 주민들이 그 보물인 것. 마을주민이 직접 만들고 꾸민 박꽃터널, 연지교, 가로수길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대실마을의 10년 뒤, 50년 후가 궁금해진다.



누구하나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꼭 되게 해야지' 하는 다짐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음성 대실마을의 이모저모

2013년 8월 완공된 연지교는 제촌지에 등동 떠 있는 부교다. 연지교 입구 기념석에 대실마을 주민인 소설가가 연지교를 걷는 이들에게라고 쓴 시가 아름답다.



연지교



蓮池橋
연 지 교

연지교를 걷는 이들에게

진흙탕에서 피어오르는 청정함으로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부드러움으로
빛물 한 방울도 떨어내는 깨끗함으로
꽃을 피우면 끝내 열매를 맺는 성실함으로
고고한 한 줄기 연대처럼
둥글고 평화로운 연잎처럼
그 어떤 악취도 향기로 되살리는 연꽃처럼
그렇게 환하고 빛나는 삶이 되시길

터널 입구에 '꿈~길'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박꽃터널의 길이는 180m. 마을 주민들이 만든 터널 기둥을 타고 마을주민이 식재한 박이 조롱조롱 걸려있다. 터널을 통과하면 연지교와 연결이 된다. 마을을 찾는 이들이 꼭 사진을 찍고 가는 명소다.



박꽃터널

진흙탕에서 피어오르는 청정함으로
거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부드러움으로
빛물 한 방울도 떨어내는 깨끗함으로
꽃을 피우면 끝내 열매를 맺는 성실함으로
고고한 한 줄기 연대처럼
둥글고 평화로운 연잎처럼
그 어떤 악취도 향기로 되살리는 연꽃처럼
그렇게 환하고 빛나는 삶이 되시길...

한눈에 보는

대실마을의 성공 노하우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리신호



청정마을 및 자연환경보호 10개년 계획

대실마을은 10년 전,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청정마을 및 자연보호 10개년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마을주민 회의를 거쳐 한마음 한뜻으로 모과 나무를 심고 마을입구에 가로수길을 만들었다. 그때의 경험과 노하우는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를 탁월하게 가꾸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



선진지 견학

농촌현장포럼 3차에 진행되는 선진지 견학은 마을주민들이 이론으로 접하면서 '우리마을도 변할 수 있을지' 품었던 의구심을 자신감으로 바꿔주었다. 대실마을 주민들 역시 선진지 견학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저 마을도 하는데 우리도 한 번 해보자'는 자신감과 함께 실천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다.



마을자원 발굴 및 활용

대실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과수, 쌈채 등의 농작물 생산 활동, 산성둘레길을 활용한 휴양 활동, 골프장과 소류지 낚시체험이 가능한 레저 활동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군의 행정적 지원과 전문조직과의 연계를 선행하여 수익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마을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성공적인 마을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두근두근
미로운 열기
강우의 향기
과수밭의 열매
건강한 마을
두근두근
미로운 열기
강우의 향기
과수밭의 열매
건강한 마을



8개 마을이 모인 강원도 홍천 팔봉리. 용이 승천했다는 도룡골, 깊은 골짜기에 있는 두명안, 쇠가 낫다는 쇠판이마을들이 너나들이하듯 앉아 있다. 뒤로 팔봉산이, 앞에는 홍천강이 있으니 배산임수 명당이다. 일교차 큰 강원도 기후에서 자란 인삼, 오미자, 찰옥수수는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해 알아준다.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마을. 몇 번의 강산이 변하는 동안 팔봉리 주민들은 나이를 먹었지만 마을은 변하지 않았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2리 일대



여덟 개 봉우리가 품은 마을, 푸른산에서 나는 삼과 활짝 핀 돌배꽃이 반기는 마을

팔봉청삼골돌배마을



우리마을의 색깔은
영차영차 래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성호 이장
강원 홍천 팔봉청삼골돌배마을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상을 받았어요. 4년 전부터 준비하던 게 드디어 결실을 맺었네요.”

“자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 사무장님, 부녀회장님, 마을지도자님. 한 사람이 열 사람 몫까지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할 소리죠. 이장님도 바쁘신데 교육 다니시랴 마을 일 돌보시랴 고생 하셨어요.”

2012년 11월. 우리 팔봉청삼골돌배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2009년부터 마을을 위해 추진위원단 여러분이 수고해줬는데 그동안 고생한 보람도 있고, 억수로 기분 좋다.

정말 기쁜 것은 워낙에 추진위원단에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열 사람 몫을 하느라 바쁘게 보냈는데 그 시간과 노력들에 보상을 받은 것 같다.

“강원도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선정되면 마을기업이라는 것도 하고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마을이 발전되고 좋은 거예요.”
“그게 뭐여. 뵈어. 그냥 조용히 살어. 뭘 한다고 시끄럽게 굴어. 지금도 잘 살고 있구만.”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어르신들도 이제 쉬셔야죠.”
“그런 말 할 거면 가.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비뵈.”

지난 2012년 11월, 강원도 홍천 팔봉청삼골돌배마을의 강성호(58) 이장과 마을대표인 최진현 추진위원장, 이정아 사무장을 비롯해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위원단 사람들은 선정 발표 소식을 듣고 서로 얼싸 안았다. 추진위원단이 결성되었던 2009년부터의 시간들이 스쳐지나갔다.

비협조적인 마을주민들, 추진위원단을 꾸려가기에 부족한 인력, 마을일을 위해 뛰어줄 사람 수가 적다보니 더더욱 되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2011년에도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탈락했다. 옆 마을만 되고 돌배마을은 안 되서 아쉬움이 컸다. 그리고 2012년 11월, 드디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었다.

마을 어른들의 모습이 본인들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117가구에 163명이 살지만 토종 마을주민은 46가구다. 나머지는 대명리조트에 근무하거나 외지인이다. 홍천강, 팔봉산을 끼고 있고, 리조트가 인근에 있다 보니 산간지역이긴 해도 도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편이다.

“우리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상을 받았어요. 4년 전부터 준비하던 게 드디어 결실을 맺었네요”



마을에서 기른 쌀, 고추, 감자 등 일부는 유기농 유통판매회사와, 인삼은 한국인삼공사와 계약재배한다. 찹옥수수 등은 주말마다 대명리조트 직거래장에서 판매한다.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거나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품이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그렇다 보니 마을주민들 생각은 ‘지금도 잘 살고 있다’에 머물렀다. 하지만 젊은층은 잘 사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 진정한 의미의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마을 어른들의 모습이 본인들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마을의 젊은층이라고는 했지만 50대 중후반이었다.

“어르신들 쉬실 때도 건강하게 재밌게 쉬시면 좋을텐데, 뭐 하고 싶으신 것 없으세요?”

“고스톱 치고 놀든 재밌는거라. 이게 치매에도 좋은 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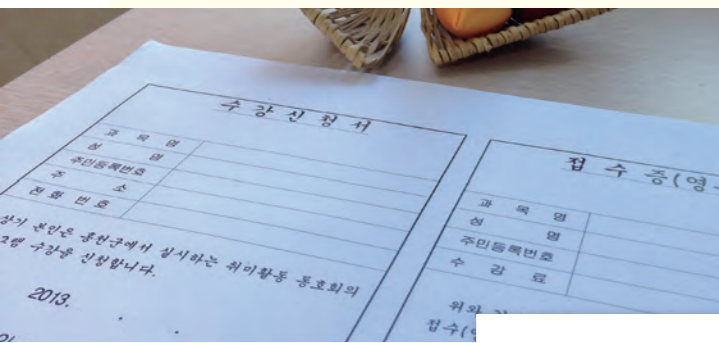
“제가 다른 마을 다녀봤는데요, 다른 마을 어르신들은 어릴 때 못 배운 한글도 배우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 없으세요?”

“배우고 싶은 것이야 많지. 배우게 해 줄거여?”

공기 좋고 물 좋은 우리마을엔 어르신들이 많았다. 2011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 지원으로 회관에 탁구대도 설치하고 난타도구들을 들여냈다. 취미활동 동호회 신청서를 써드리는데 아이처럼 좋아들 하셨다. 어르신들께 신경을 써드리자 그동안 마음의 문을 닫았던 마을주민들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마을을 변화시킨 것, 교육의 힘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한 후부터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 대단하다는



“배우고 싶은 것이야 많지. 배우게 해 줄거여?”

것을 느꼈다. 당장 나만 해도 추진위원단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보고 듣고 하면서 깨친 게 많으니까.

“우리마을의 자원이 뭘까요.”

“강원도면 옥수수지, 찰옥수수.”

“돌배 아니여. 돌배. 꾀간한 게 맛은 최고지.”

마을회의를 통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마을공동으로 찰옥수수와 돌배를 재배하는 것에 찬성했다. 공동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대명리조트가 있으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을 우리마을에 와서 머무르게 하자고.”

현대적인 시설에서 겨울과 여름 스포츠를 즐겼다면 농촌에 와서 전통체험을 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다.

“근데 다른 마을 보니까 마을하고는 상관없는 양초 만들기 하고 초콜릿 만들기 하고 그러던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마을 색깔이 아니잖아.”

마을 특산물인 오미자로 와인을 만들자는 얘기고 감자떡 만들기, 인삼씨 따기, 옥수수 삶아먹기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제는 체험마을 환경을 만드는 일만 남았다.

서두름 대신 기다림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비의 일부로 마을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불편했던 주거환경을 보수한 것. 사업비 쓰임이 피부로 느껴지자 마을주민들의 참여의지는 높아졌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입구에 야생화를 식재해 마을을 꾸미고 폐비닐, 비료 포장 등 논과 밭에 널려있던 쓰레기들도 거두었다. 마을이 깨끗해지자 흡족해한 사람들은 당사자인 주민들이었다.

식재한 야생화들이 만발했을 무렵에는 축제를 열었다. 체험관 부지로 선정된 터에서 주민들과 도시민들이 함께하는 떡메치기 등 전통놀이와 노래자랑을 하는 한편, 마을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마을주민들 화합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증폭됐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만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진정한 의미의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마을기업 컨설팅이 있어요. 마을기업이란……”

“알아. 알아. 오미자하고 이런 거 우리마을 이름으로 파는 거잖아. 선진지 견학가서 다 보고 왔잖아. 근데 컨설팅? 그건 뭐여.”

“그냥 파는 것도 좋은데 가공할 거예요. 오미자하고 돌배를 발효해서 오미자청하고 돌배와인 만들거예요. 컨설팅은 전문가가 와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 같이 의논해주는 거예요. 현장포럼 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르신.”

“그려 해봐. 가서 받을테니까.”

사업을 진행할수록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들 바뀌었다.

체험객들이 오고 하면 마을에 활기가 돌고 더 즐거워하시겠지. 숙소만 잠깐 이용하고 가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살기 좋은 우리마을 소문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일거리가 늘면 마을을 찾는 젊은이들도 늘거고, 일손도 늘어나겠지.

대형리조트 옆에 있는 농촌마을이 ‘팔봉청삼골돌배마을’로 제 색깔을 가진 것은 2009년이였다.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소수 추진위원단의 희생과 노력이 마을주민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



서두름 대신 기다림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업을 이끌어왔기에 가능했다. 팔봉청삼골돌배마을 주민들은 이제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마을주민이 함께 쓰는 청삼골돌배마을의 미래 일기는 오미자청 색처럼 화사하고, 인삼처럼 영양가 많으며, 찰옥수수처럼 쫄깃쫄깃할 것이다.



“알아. 알아. 오미자하고 이런 거
우리마을 이름으로 파는 거잖아.
선진지 견학가서 다 보고 왔잖아”



팔봉청삼골 돌배마을의 이모저모

농촌관광

홍천 서면 팔봉리와 모곡리, 마곡리에 걸쳐 흐르는 홍천강은 수심이 낮고 수온이 따뜻해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다. 백사장과 미루나무숲이 우거져 있고 강 유역이 넓어 여름철에는 야영지로 인기가 높다. 풍부한 어종 덕에 낚시를 즐기기도 좋으며 겨울에는 홍천강공공축제를 개최해 사계절 내내 도 시민들의 발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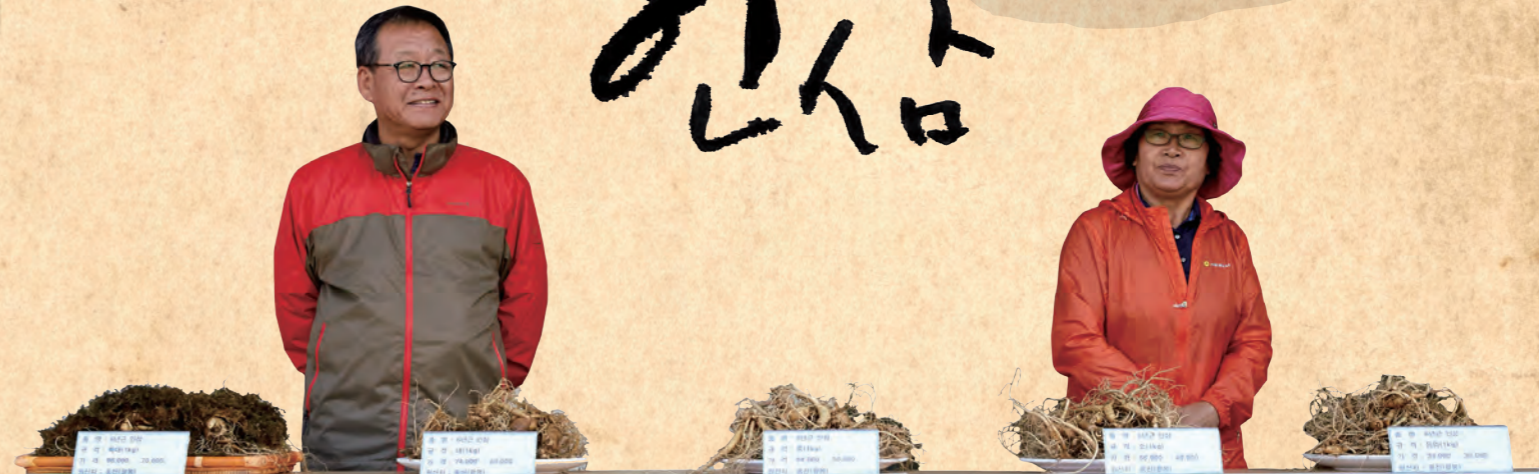
팔봉청삼골돌배마을의 특산물로는 6년근 인삼, 오미자, 돌배, 찰옥수수, 감자, 우렁이쌀 등이 있다. 그 중 대표는 30년 전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이 마을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6년근 인삼이다. 일교차가 크고 토질이 좋아 단단하고 사포닌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인삼

대명리조트



1993년에 스키장을 개장한 홍천대명리조트는 팔봉청삼골돌배마을 주민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마을에서는 대명레저산업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리조트 내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인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리조트를 찾는 사람들 일부는 마을에서 숙박을 해결한다.



홍천 6년근 인삼 특대(1kg) 96,000 70,000 팔봉청삼골 돌배마을	홍천 6년근 인삼 대(1kg) 74,000 60,000 팔봉청삼골 돌배마을	홍천 6년근 인삼 중(1kg) 64,000 50,000 팔봉청삼골 돌배마을	홍천 6년근 인삼 소(1kg) 56,000 40,000 팔봉청삼골 돌배마을	홍천 6년근 인삼 등외(1kg) 33,000 30,000 팔봉청삼골 돌배마을
---	--	--	--	---

! 6년 인삼

마을공동생산 원가판매실시

팔봉 청삼골 돌배마을

한눈에 보는

청삼골돌배마을의 성공 노하우 강원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김기성



적절한 역할 분담과 책임운영제

청삼골돌배마을은 마을사업 추진시 마을리더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책임 운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마을리더들은 한 사람이 열 사람의 몫을 해내며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는 등 마을변화에 앞장서 솔선수범했다. 이들의 열정과 리더십은 시나브로 마을주민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자발적으로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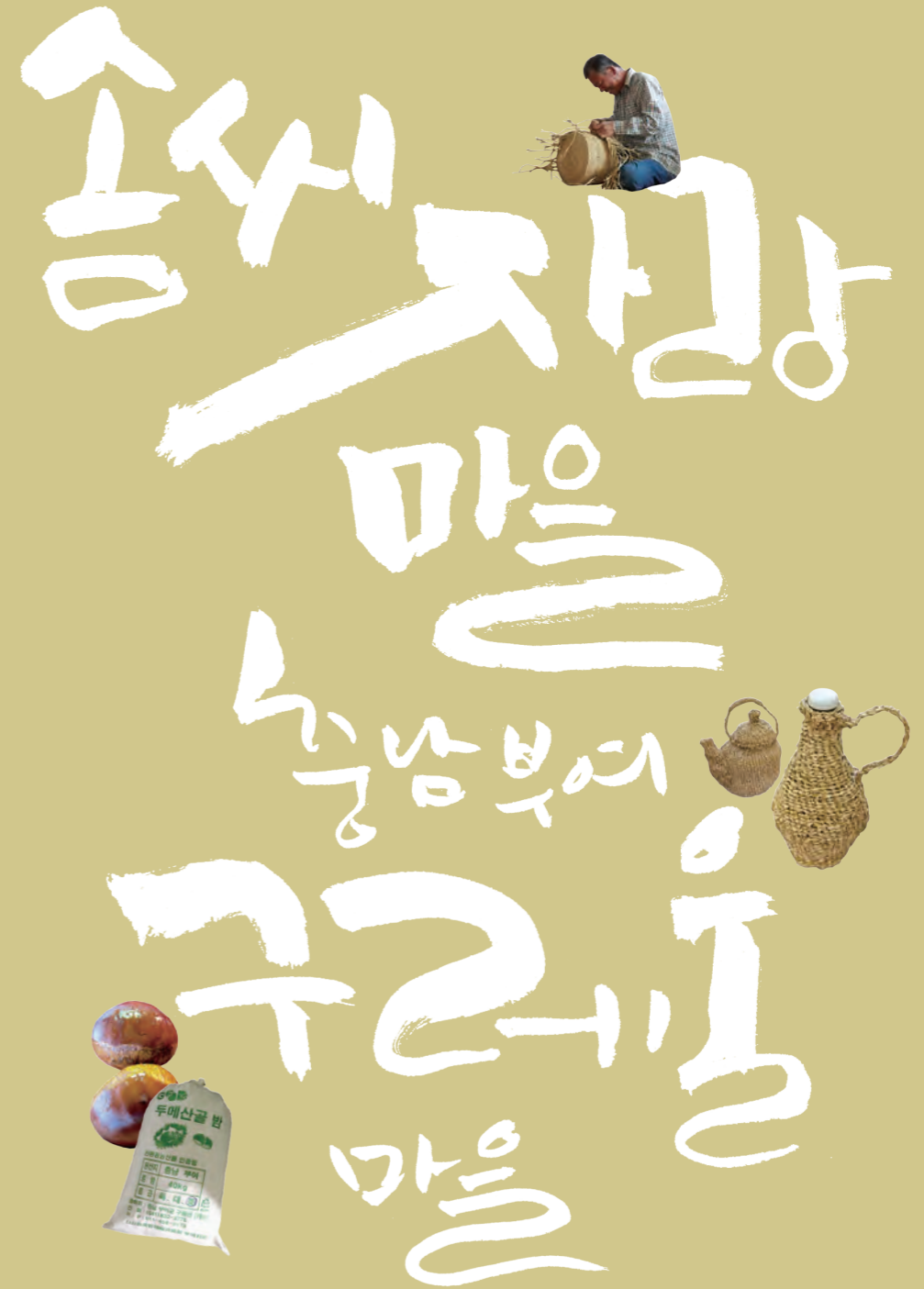
합리적인 사업비 활용

청삼골돌배마을의 투명한 사업비 집행은 마을주민들이 마을리더들에게 신뢰감을 갖는 첫 단추가 되었다. 마을리더들은 고령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마을 환경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마을발전에 대해 모든 주민이 이해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

청삼골돌배마을은 농촌체험마을의 후발주자임을 인식하고 다른 마을과 차별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소득대체 작목의 선정과 마을 역량의 집중으로 마을의 소득작목을 육성하는 덕에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후속사업의 지원으로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



평범한 농촌이다. 공기는 좋지만 물이 없고, 유명한 산이나 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뚜렷한 주변 관광지도 없는 마을. 그래서 충남 부여 구례울마을은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까지 고속도로를 지날 때 차창밖에 풍경처럼 자리한 마을이었다. 마을주민 스스로도 “우리마을은 지루하다”고 여길 정도였다. 그런 마을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며 재밌는 마을로 변하기 시작했다.



부여군 내산면 천보리 일대

충청남도

부여군 구례울마을

벗짚이 예술품으로 탄생하듯, 자원 없던 마을이 색깔있는 마을 되다





우리마을의 색깔은
 솜씨 아니간

최홍기 위원장
 부여 구례울마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짚풀공예체험마을로 만들어보자고~”

“오늘 영은이(가명) 아버지는 왜 안 보인당가.”

“거 왜 지난번에 생강 심은 거 있자녀. 오늘 그 밭에 올라갔다 온다~”

오늘도 체험관에 나왔다. 아직 체험객은 없지만 바깥 공사가 끝나는 겨울이 되면 이 자리가 체험객들의 자리가 되겠지. 생강밭에 올라간 영은이 아버지하고 두어분이 안 보인다. 그러고는 매일 만나는 얼굴이다.

점심 먹고 슬슬 이곳으로 출근해 새끼도 꼬고 끈 새끼를 엮어서 삼태기, 미꾸리와 명석, 향아리를 만든다. 말린 벚짚으로 만든다고 해서 짚풀공예다. 주민 대부분 아직 상품으로 팔 정도의 실력은 안 되지만 우리마을엔 짚풀공예 장인이 두 분이나 계신다.

지금이야 짚풀공예품이 인테리어 소품이지만 이 어르신들이야말로 어렸을 때는 짚풀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게 일상 중 하나였으니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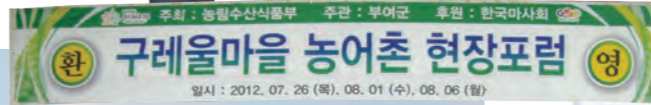


작년 초겨울부터 시작했으니 이렇게 주민들이 공동으로 짚풀공예를 시작한 지도 1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만든 꽃병, 명석, 짚신, 바구니들을 체험관 한쪽 벽에 전시해두었더니 근사하네. 점점 우리사업이 뭔가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고, 뿌듯하다. 주민들 사이에서 짚풀공예 전시관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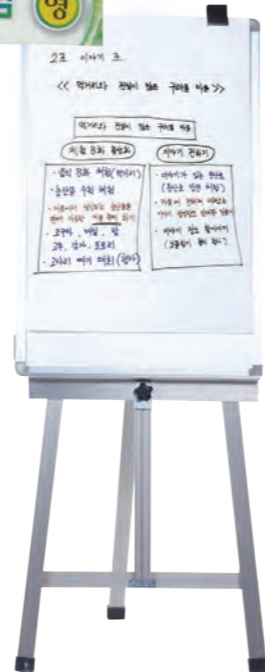
최흥기 위원장(68)이 있는 충남 부여 구례마을은 지난 여름 농림축산식품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현장포럼을 신청했다. 2013년도 충청도 지역에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현장포럼을 진행한 곳은 전국의 20%. 구례마을을 어떤 색깔로 칠할 지가 이 마을에서는 관건이었다.

유명한 산, 물 좋은 계곡, 주변 관광지, 특산물 등 다른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이 이 마을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마을기업을 한다면 상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농작물로 뭐가 좋을지, 체험마을을 한다면 어떤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들이 가능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마을에서는 나올 만한 게 없다고 여겼다.

마을주민들은 2일간의 현장포럼과 하루동안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태어나고 자란, 혹은 시집와 살면서 한 번도 객관적으로 보지 않았던 마을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누가 돈을 들여서 우리마을에 오겠어. 안 그래?”



“자원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여”



“우리마을에 이래 솜씨좋은 양반들이 많았어?”

“여기에 무슨 체험객이 오겠어” 했다. 부여라고는 하지만 ‘부여’는 공주에도 남아있지, 이천에도 조금 있지, 경주처럼 집중도 안 되자녀. 여행도 강원도로 가지 누가 돈 들여서 이곳에 오겠어. 반문을 많이 했다. 나뿐만 아니라 특히나 여기서 나고 자란, 여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들 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라. 조용한 마을 시끄럽게 허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구만.”

3년 전 마을 결의대회 때 어르신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았다. 마을이 잘 살라고 하는 거라 해도 고정관념을 깨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현장포럼 때 서울서 박사님도 오고 컨설팅도 허고, 전지에다가 마을 지도도 그리다 보니 어르신들도 재밌어 했다.

마을에서 특별하게 그런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여태 없었됐다. 교육 받는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교육 용어들이 영어가 많고 그러긴 했지만 생소허기는 해두 나부터도 재밌었다.

주민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마을의 사례들도 보고 듣다 보니

“짚풀공예하면 구례울, 구례울하면 짚풀공예하는 마을~”



구례마을 주민들은 다른 마을에는 없는 체험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짚풀공예체험으로 뜻을 모았다. **벚짚이야 눈에 많고, 마을에는 기능을 전수해줄 수 있는 장인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체험객을 맞을 준비의 일환이었지만 마을주민들은 짚풀로 향아리도 만들고, 상모도 만들고, 미꾸리를 만드는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얼굴보며 대화하는 재미에 푹 빠진 것.

갈등이 있다면 풀고, 걱정이 있으면 위로 받으며 짚풀과 함께 마을주민 간에 화합도 엮었다. 정말 바쁜 농번기일 때도 꼬박꼬박 오전엔 일을 보고 오후에는 모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 씩 배운 대로 무조건 작품을 만들었다.

짚풀도 엮고, 마을 주민들의 화합도 엮고

하다보니 짚풀공예는 기능 뿐 아니라 일자리창출 사업도 되었다. 그 덕에 여기에 매일 출근하는 양반들에게 적게나마 월급을 줄 수 있게 됐다. 어른들이 통장으로 월급이

우리마을도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에 투명스러워하던 어르신들도 도와주겠다고 했다.** 고맙게도 정용임 사무장이 자비를 들어가며 어르신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다녔다. **어르신들이 마음을 많이들 열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마을에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원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머리를 모았다.

“자 여기에 자기가 제일 잘 하는 거 한 번 써봐유.”

“나는 지붕에 이엉을 잘 얹어”

“맞어유, 순이네 고추장, 된장은 정말 우리만 먹기에 아까워유.”

“나는 어릴 때부터 짚으로 뭐 엮는 거는 잘 한다고 그러긴 했는데..., 것도 자랑이 되는 건지 모르건네유”

한 분 두 분씩 이야기를 보태다 보니 우리 마을에 숨씨 좋은 양반들이 많았다.

“짚풀로 뭘 허유? 어르신 한 번만 보여줘봐유~”



짚풀도 엮고,
마을 주민들의 화합도 엮고





들어오니까 첫 월급으로 마누라 빨간내복을 사줘야겠다며 좋아 했다. 손주들 오면 용돈도 챙겨줄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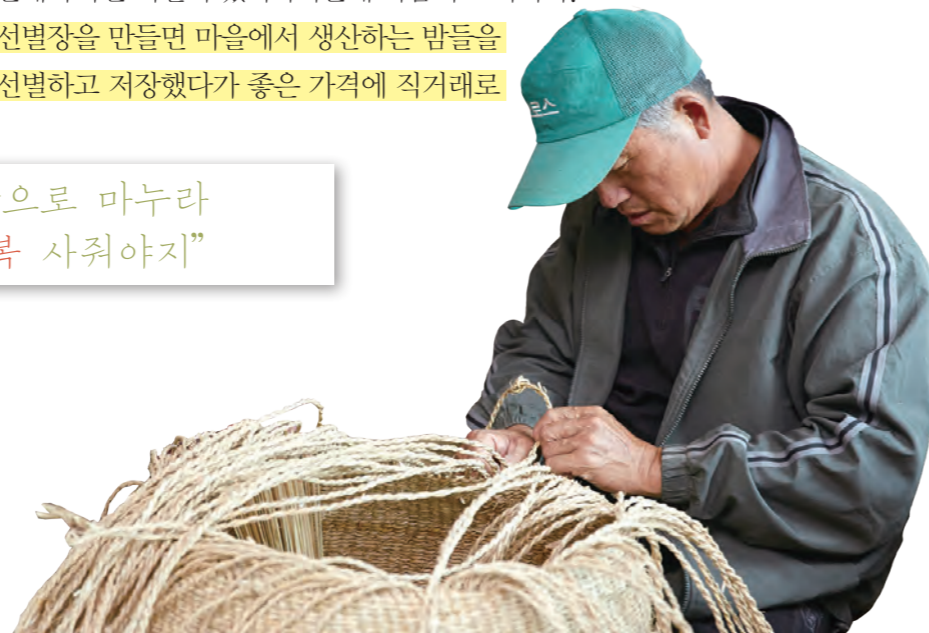
우리마을이 짚풀공예로 텔레비전에 몇 번 나왔더니 그거 얼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거를 수요가 얼마나 될 지 모르지만 마을기업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가끔 체험객들이 와서 짚신 신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주면 너무 좋아한다. 만져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 특성도 그렇고,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체험이다 보니 신기하기도 하겠지. 어른들은 옛날 생각도 날 것이고.

공사가 후딱 마무리되서 더 많은 체험객들이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 좋을텐데. ‘짚풀공예체험하면 구례울, 구례울 하면 아~ 짚풀공예체험하는 마을’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

구례마을의 주 수입은 마을을 두른 산에 심은 밤농사다.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딱 한 달 수확하는데 이 밤으로 마을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러기 위해 생각한 것은 밤 가공. 간밤을 시작으로 밤막걸리 등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시설이 있어야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다.

선별장을 만들면 마을에서 생산하는 밤들을 선별하고 저장했다가 좋은 가격에 직거래로

“첫 월급으로 마누라 빨간내복 사줘야지”



판매할 수 있다. 추가로 밤가공품을 만들어 밤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 체험마을 사업이 잘 되서 시설자금을 마련하면 마을주민들의 형편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짚풀공예의 첫 단추는 벚짚으로 새끼를 꼬는 일이다. 그런데 새끼를 꼬을 때 사람마다 힘도 다르고 솜씨도 다르니 새끼줄 굵기와 만들새도 다르다. 같지 않은 것이 ‘유일함’이라는 수제품의 미덕이 아닐까.

타 마을과 다른 자원을 택한 구례마을은 이제 전국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체험마을과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다. 그들이 만드는 짚풀공예처럼 말이다.



부여군
구례읍마을의
이모저모

천보산



구례읍마을은 천보산 품에 안겨 있다. 온 나라 사람이 3일간 먹을 것이 들었을 정도로 먹을 것이 풍부해서 이름 붙였다 하는데 크고 기이한 모양의 바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천보
소류지

구례읍 마을 입구에는 위치한 천보 소류지. 아담한 저수지로 '강태공'이 한적하게 머물다 가는 곳이다.



밤나무



구례읍마을에 주농사는 밤농사이다. 마을 어디를 가든 밤나무를 만날 수 있다. 가을이면 입을 짝 벌린 밤열매 껍질 사이로 반질반질 윤이 나는 밤열매를 볼 수 있다.



한눈에 보는

구례울마을의 성공 노하우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배성의



체험마을 결의대회

다른 마을들은 서로 농사 아이템이 다르지만, 구례울마을은 주민 모두가 의견을 취합해서 한 작물, '밤'을 생산한다. 마을에서 생산하는 밤들을 직거래하고, 밤 가공품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마을주민들의 목표다. 농외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체험마을 결의대회를 열었다.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현장포럼의 전 단계 격인 결의대회를 주민 자체적으로 열면서 마을주민들은 마을발전 단합의지를 키웠으며 그 결과 성공적인 현장포럼을 진행할 수 있었다.



자발적 선진지 견학

구례울마을은 현장포럼 시 지원되는 견학 외에 마을주민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다른 마을에서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주민들은 마을발전의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고, 견학하며 시간을 함께 보낸 덕에 이루어진 마을주민들의 화합은 주도적으로 마을 변화를 견인하는 재산이 되었다.



인적자원 발굴

밤나무를 심은 발밖에는 마을의 특별한 특색도 자원도 없는 구례울마을의 주민들은 스스로를 자원으로 삼았다. 짚풀공예처럼 우리나라 전통으로서 그 맥을 이어갈 수 있기도 한 마을 어르신들의 손기술은 구례울마을이 체험마을로 거듭날 수 소중한 자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요긴하게 쓰고 있다. 아울러 마을기업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97_충북 증평 장이억어가는마을

111_전북 정읍 원오봉마을

125_전남 보성 봉천 메주익는마을

139_강원 태백 조탄마을

153_충북 청원 연꽃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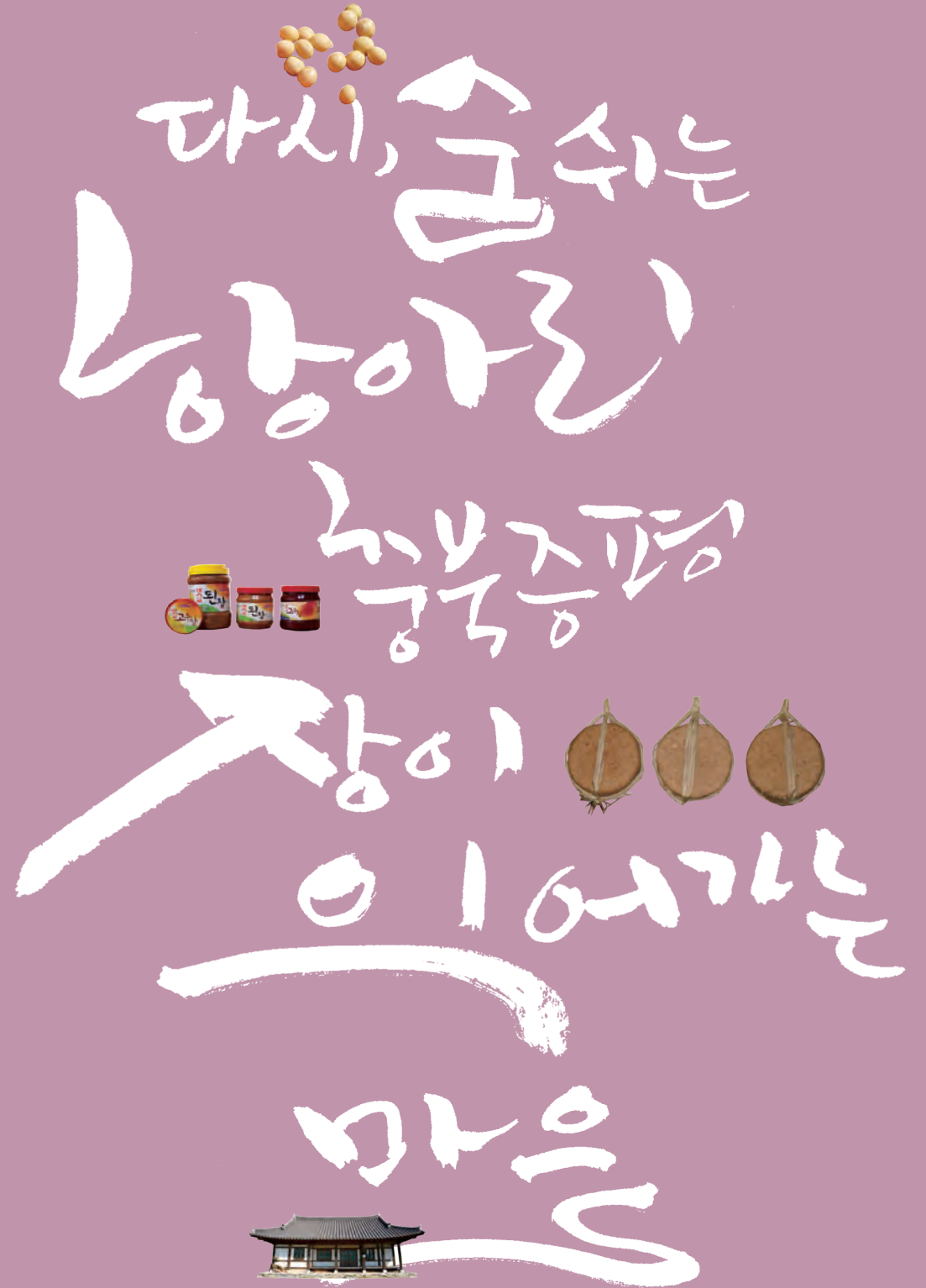
“시장님, 저희 동굴이 하나 있는데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왜요, 동굴에 뭔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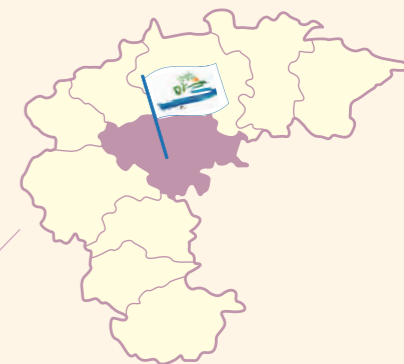
“동굴 속에 김치를 해 놔는데 너무너무 맛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잡좌 보시고 사업을 구상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시고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김치를 잡좌보셨다. 그리고는 진짜 맛있다면서 서울에 있는 식품 박사님을 모시고 오셨다. 박사님도 온도도 적합하고 맛도 좋다고 하셨다. 온도계도 내가 사다가 다 달아놨던 것이다. 동굴 안은 암석이라 물이 좋은데 미네랄이 들어 있는 1급수다.

- 강원 태백 조탄마을 양채봉 위원장



6년 전 마을전통체험관을 짓고 '장이익어가는마을' 문패를 단 날, 증평군 송산리의 주민들은 '이제 우리도 잘 사는 마을이 되겠지' 기대했다. 3년쯤 지났을까. 마을의 자랑일 줄 알았던 체험관에 거미줄이 걸렸다. '그만 뒤야하나?' 고민도 잠시, 주민들은 콩이 장이 되려면 발효라는 과정과 숙성이라는 시간을 거치듯 실패도 과정이라 여겼다. 3년 전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를 자양분 삼아 콩에 싹을 틔웠다. **마을엔 다시 장 달이는 냄새가 났다.**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일대

장이 익어가는 마을

가마솥에서 모락모락 콩 삶는 김이 난다, 마을도 모락모락 따뜻하게 저물어간다





우리마을의 색깔은
촌스러움 이어~



민상기 위원장
증평 장이익어가는마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망했다고 손 놓을 순 없지, 우리마을이 어떤 마을이여”

애초 ‘노는 땅, 노는 사람’을 활용해 잘 사는 마을을 만들고자 벌인 일이었다. 우리마을이 어떤 마을인데. 어르신들이 ‘의좋은 형제’처럼 낮에는 자기일 하고 밤에는 마을일 하며 서로 잘 살기 위해 도와가며 살아온 마을 아니간. 체험관을 지은 땅은 또 워편 땅이여. 마을주민 대여섯이 모여도 잡혀갔던 일정 때 어르신들이 일본놈들 몰래몰래 대동계를 해가지고 마을일해서 번 재산으로 일군 땅인데, 망했다고 손 놓을 순 없지. 원인이 무언지 곰곰 생각해봐야지.

충북 증평군 장이익어가는마을의 민상기 위원장(60)은 14년간 이장일을 하는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때를 3년 전으로 꼽는다. 10년 전 괴산군에서 개청된 증평군은 마을 두세 곳에 혁신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때 민 위원장은 정보화마을사업의 운영

위원으로 있으면서 주민들과 ‘으쌔으쌔’해서 전통체험관도 짓고 열심히 뛰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 사업이 ‘망해버렸다’. 도시민들을 불러 장 담그기와 농촌, 한옥체험을 하는 한편, 마을주민들이 담근 고추장, 된장, 간장을 마을 브랜드로 판매하면 전보다 형편이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성고가 안 좋다보니 보조금 지원마저 뚝 끊겨버렸다. 원인이 뭘였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너무 모르고 덤빈 것이 문제였다. 장을 담그면 용기에 담아 시장에 내다 팔면 된다 생각했지, 식품 허가란 게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깔끔하고 단정하게 한옥 만들어 놓으면 도시민들이 알아서 내려와 줄줄 알았지, 홍보를 해야 하는 줄은 정말 몰랐어. 마을 대표인 세영이 형님을 찾아갔다. 이대로 주저 않을 수는 없다고 도와달라고 애걸했다. 군에 가서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소개를 들은 후였다.

“나라에서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를 한대유. 우리마을도 다시 해봐야지 않겠슈.”

“뭘여, 전에도 했자녀.”

“비슷한디 달라유, 형님. 이진 마을주민 모아다가 교육도 하고 다른 마을 견학도 하고 그러는 거유. 보조금도 지원해 준대유.”

“그류? 워찌케 하는 건디.”

“나라에서 색깔있는 마을만들기를 한대유. 우리마을도 다시 해봐야지 않겠슈”



뭐가 문제였는지도 보였고, 우리도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형님이 기꺼이 도왔다. 마을주민 모아 현장포럼에 참여하자고 권유하는 일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했다. 우리마을엔 체험관이 있으니까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쉬울 것 같았다.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로 다시 일어나 보자고~”

현장포럼을 하다보니 뭐가 문제였는지도 보였고,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니 우리도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 오니까 마을주민들은 전보다 더 협조적이 되었다.

힘이 모이면 더 세지는 법. 뜻을 모아 우리마을 영농법인을 만들었다. 공동으로 작물을 출하하다 보니 다른 농작물도 검토하게 됐다. 우리마을은 옛부터 사질양토로 배수가 잘 되는 토질이니 뭐든 잘 될 터지. 봄에는 감자를, 가을에는 배추를 심어보자고. 감자는 요옆에 제과공장에 납품할 수 있게 허지 뭘.

종자가 좋은 배추씨를 사다 심었다. 알이 굵고 실패 볼 때마다 배

부른 놈들. 65일동안 밭에서 자란 것들로 절임배추하니까 좋았다. 일자리도 늘고, 우리마을 매출이 6천 5백만 원으로 불었다.

올해 목표액은 1억 2천만 원. 이를 채우려면 주작물인 콩으로 해야하는데 지속적인 판로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망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마을처럼 서울에 단지 큰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을텐데. 일회성인 자매 결연보단 훨씬 든든하겠지. 부러웠다.

뭐 우리마을도 여행사와 연계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마을에 와서 가마솥에 인삼삼계탕을 만들어 먹는 체험을 허긴 했다. 색동저고리도 입히고, 직접 만든 것은 처음이라고 신기해하고 재밌어 했지. 나도 그렇고 우리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하고 재밌었어.

“나는 오늘도 장마을에 간다”

내가 ‘장마을’에 간다고 하면 내 일보다 장마을 일을 먼저 본다고 집에서 안 좋아한다. 그런데 나 역시 60년 동안 어르신들 보고 자란 것이 그건데 워쩐다~

체험관 앞에 기념비 세운 것도 그곳이다. 어르신들 이름 하나 하나 열고, ‘나무에 근간이 있으면 물에는 근원이 있다네’라는 기념비문을 새겼다. 근간과 근원 같은 어르신들에게 물려 받은 것은 그 정신뿐만 아니라 다행이다.

우리마을의 효자농작물인 콩. 이 콩으로 메주를 뜨고 장을 만드는 것도 다 어르신들이 하신 방법 그대로 살려서 했다. 전통방식 그대로 하다보니 옛날에 먹던 그 맛 그대로다.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신 것을 먹는 거지. 방부제도 없고.

요즘은 저 항아리에 하나둘씩 이름표가 달린 것을 보면 흐뭇하다



장이억어가마을에는 무쇠가마솥이 7개가 있다. 요즘 방식처럼 스팀으로 콩을 찌지 않고 6시간 삶기 때문에 하루에 세 가마니밖에 못 삶는다. 마을에서도 많이 팔아보려고 욕심을 내 기계를 사서 해 본적도 있다. 근데 맛이 달랐다.

벚꽃에 있는 곰팡이균으로 메주를 발효시키는 방식이나 소금물 농도를 맞출 때 날계란을 띄어 측정하는 것, 메주를 쓸 때는 삼월삼짓날 중 말날, 그러니까 달력에 말그림이 그려진 날에만 쐬는 것도 옛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이다.

아~참. 항아리! 내가 저거를 살 짝에 전국으로 수배를 다녔댔다. 생긴 건 투박하고 못 생겼어도 숨 쉬는 항아리다. 장 담글 때 뚜껑을 열어 햇볕에 쐬어주고 달아주고 하는 것만큼 항아리가 숨 쉬는 것도 중요헌께.

요즘은 저 항아리에 하나둘씩 이름표가 달린 것을 보면 흐뭇하다.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하고 보관하고 간 것들로 숙성되면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한다. 아파트나



전통방식 그대로 하다보니 옛날에 먹던 그 맛 그대로다



집에 두면 냄새도 나고 보관하기 불편하니까. 우리마을에서 안전하고 맛있게 잘 숙성시켜주고 보관 한다.

거다 고마운 마음도 담는다. 이름표 달린 향아리를 점점 늘릴 계획이다. 판로가 중요해. 또 다시 실패할 수 없으니까.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내가 꼭 막힌 사람이라 그런가. 도시화가 빨리 이뤄지다보니 이러다가 우리마을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전통이 점점 사라지는 것도 안타깝고, 우리마을 장을 굳이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이유도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릴 적 시집와서 마을 어르신들한테 배운 그대로 고추장 담그고, 된장 만드는 걸 하는 우리마을 부녀회장님한테 고맙다. 시집와서 동네 어른들한테 물어 물어 배운 건데.

마을기업 사업이 잘 되면 경제적인 득도 있지만 더 바라건데 누구 하나가 아닌 마을 공동이 잘 사는 마을이 되는 거다. 마을이 잘 되야, 굳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야, 개인도 잘 되는 것이 아닌가.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 증평 장이익어가는마을은 지금 다시 태어나는 중이다. 메주가 숙성되듯 사업의 부침으로 빛은 성숙한 체험프로그램과 마을기업 상품들도 새옷을 입었다.

주민들 갈등 때문에 혹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사업이 중단된 마을이 많다. 흥물이 되어버린 마을입구에 마을이름 비석이 그 마을주민들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듯하다. 증평 장이익어가는마을도 그럴 뻔 했다. 체험관도 향아리 위에도 먼지만 고스



란히 입을 뻔 했다. 그런데 지금은 ‘장이익어가는마을’ 문패가 다시 반짝반짝 윤이 난다.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로 포기하지 않고 마을주민들이 다시 노력한 결과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장이익어가는
마을의
이모저모



도시민들이 장 담그기 체험 후
직접 만든 장을 보관하는 장독
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농장아리



농체험관



한옥으로 지어진 체험관. 가족방,
단체방, 식당 등이 마련되어 있어
숙박이 가능하다.

배추밭

가을배추가 유명한 충청도. 그 중에
송산리 밭에 심은 배추는 알이 굵고
실한 게 특징. 마을에서는 이 배추로
절임배추를 만들어 판다.



한눈에 보는

장이익어가는마을의 성공 노하우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리신호



시행착오

장이익어가는마을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운영한 체험마을 운영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았다. 무엇이 문제였고, 부족했는지 파악한 뒤 마을의 리더들과 주민들은 부족한 것은 공부해서 깨달았고 문제였던 부분은 제거했다. 사실 장이익어가는마을의 성공 노하우 중에 시행착오보다 더 큰 노하우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자 한 의지다.



전통지킴이

장이익어가는마을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전통방식으로 장을 담근다. 여기에는 마을기업 상품의 차별성을 두려는 것도 있지만 사라져가는 전통의 기술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마음이 담겨있다. 옛부터 내려온 조상의 정신을 지키고 이어가려는 마음이 장이익어가는마을만의 색깔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야기가 있는 마을

장이익어가는마을은 마을의 자체 자원이 많이 발굴되지 않아 지금은 증평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지 및 문화재를 소개하고 있다. 전통테마마을을 기반으로 하여 마을 내 자원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접목하면 방문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들 수방에서
누가 인공
전북정유



이것이
우리
마을



논도 넓고, 밭도 많은 마을이다. 농작물이 자라기에 기후도 적합해 먹을거리도 풍부했지만 꿈 많은 마을의 청년들은 마을 옆에 개통된 호남고속도로에 몸을 얹고 떠났다. 호남선이 개통되던 시절 새로 지은 마을의 가옥들은 남아있는 마을주민처럼 나이를 먹었다. 아들딸을 도시에 보내고 추억을 먹고 사는 마을주민 앞에 추억을 재생하는 일이 꿈처럼 펼쳐졌다.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가 함께여서 가능했다.

시간이 멈춘 듯, 고향을 떠난 이들의 추억이 소환되는 마을에 문화와 예술이 꽃피다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일대



정읍 원오봉마을





우리마을의 색깔은
굿거리 장단이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형욱 위원장
전북 정읍 원오봉마을

“마을 자원 찾기가 뭐당가? 워매~ 우리마을에 보물이 있다고?”

“그랴. 말해보드라고. 자원이 뭐 워졌다고?”

“그러니까 어무이~ 우리마을에 자랑할 거시기가 뭐가 있는지 그걸 써보랑께요.”

“자랑? 그 누구냐 그집 아들내미 노래 허벌나게 잘 하는디 뭐 그런 장기자랑 말이여?”

“뭐, 그런 것도 좋구요잉. 꼭 사람 아니라도 괜찮으니께 함 말씀 해보쇼잉.”

“뭐 공기 좋구, 정도 많구, 우리마을 아집들 음식도 참 잘 해부러야~ 만 데 가서 묵음
맛 읍어서 못 묵는당께.”

“워매~ 그건 다른 시골도 다 똑같당께요. 우리마을에 자랑할 게 그러코롬 없당가요?”

“이적지 나가 이란 걸 해봤어야 알제. 힌트 좀 줘보랑께. 궁께 얼마 전에 마을사람 다
달려들어 몇 날 며칠 이밭소 고치고 벽에 색칠하고 그란 건 워떠? 구경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자녀~”



김형욱 위원장(54)이 있는 원오봉마을의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현장포럼 첫 날.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 30~40명은 마을의 자원을 찾았다. 얼마 전에 새로 지은 마을 공동
창고, 마을 뒷산에 있는 대나무숲, 마을 입구에 있는 정미소 등 많은 자원이 나왔지만
그 중 ‘스티커’가 제일 많이 붙은 것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원오봉마을박물관이었다.

지게, 호롱기, 재봉틀, '술' 담배, 흑백 텔레비전, '설악산표' 책가방, 버선, 맷돌, 낫그릇, 요강 등 박물관 안에 전시품을 채운 이들도 마을 주민이고, 30년간 방치해두었던 옛 이발소를 예쁘게 재탄생시킨 이들도 마을주민이다.

전시품들은 각자 집에 있는 창고와 다락방에서 꺼낸 옛날 물건들. 출향인뿐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이들이라면 눈가를 촉촉히 적시 고도 낡을, 손때 묻고 낡은 추억의 물건들이다.

명실공히 문화예술마을로 자리매김하는 원오봉마을

워낙에 농사를 많이 짓던 마을이다. 평야가 많아부니까. 먹을거리가 많았다. 근디 농산물을 생산만하는 것은 지나불었다고 교육을 다니면서



“공계 얼마 전에 마을사람 다 달려들어 몇날며칠 이발소 고치고 벽에 색칠하고 그란 건 워떠?”

그란 얘길 많이 들었다. 친환경뿐 아니라 공계 말하자면 다양한 가공기술력까지 날로 높아져분다고. 그래야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켜분다고.

그란디 마을 어르신들은 점점 연로해져부니까 마을이 나사질 거 같지 않고, 이장 된 책임감으로다가 젊은이들이 마을에 찾아와 마을에 터를 잡게 하고 싶었다. 출향인들도 모으고.

김 위원장도 젊었을 땐 마을을 떠나 건설업을 했었다. 작은 카메라를 갖고 다니며 업무에 필요한 사진은 직접 찍었다. 정식으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쌓은 실력을 발휘해 마을 사진을 찍고 길보분 사무장이 글을 써서 마을 소식지를 만들었다. 소식을 배달받는 독자는 출향인들이었다.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소식을 사진과 글로 생생하게 볼 수 있어 출향인들의 반응은 좋았다.

마을에 활기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마을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나눴다.



“아, 그럼 여그를 아예 추억의 명소로 만들어볼문 쫓가 솔참치 않을까?”



마을에는 문 닫은 지 30년 된 이발소가 하나 있었다. 폐기하기에는 주민들의 추억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 창고처럼 쓰고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마을박물관.

“아까워야. 여그서 까까머리하고 그렸는데. 여그서 저 이발소 이용 안 해 본 사람 있간?”
“아, 그럼 여그를 아예 추억의 명소로 만들어볼문 쫓가 솔참치 않을까?”

마을주민들은 어린시절 추억이 담긴 곳에 그 시절을 소환하는 물건을 전시하자고 입을 모았다. ‘문화’가 뭐고, ‘예술’을 어떻게 다룰지 몰랐지만 마을주민들은 그들만의 문화와 예술을 마을의 색깔로 만들었다.

7,80세 되는 마을주민들 세대가 젊었을 때는 풍물놀이패가 있었다. 우리네 전통 흥을

즐기던 ‘예술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 마을박물관에 유난히 장구며 징, 팽과리, 북 등 풍물악기가 많은 것이 그런 연유에서다.

예술인의 유전자 덕일까. 마을박물관의 벽화를 그리고 칠한 이들도 마을주민들이다. 밤에 영사기를 쏘아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날이 밝으면 붓에다 페인트를 쿡 찍어 하나 하나 채색해서 완성했다.

나 어릴 때만 해도 예전에는 풍물놀이 멤버가 다 있었다. 어르신들이 작고하고 난 뒤 다들 나가 있느라 배우덜 안 해서 지금은 끊겨부렀지만서도. 소리꾼도 있고, 상여할 때도 보문 앞에서 메기는 분도 겁나게 구수하게 잘 해서 라디오 프로그램 우리가락 인가에도 나오고 그렸는데. 특별히 잘 나가는 이들은 아니지만 뭐 우리마을에는 화가도 있고, 시인도 있고, 수필하는 분도 있고 그란 거 보문 끼를 물려 받았을 수도 있제.



밤에 영사기를 쏘아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날이 밝으면 붓에다 페인트를 쿡 찍어 하나
하나 채색해서 완성했다

“어르신들 떠나시기 전에 풍물놀이도 단디 배워야제~”

원오봉마을에서는 지난 8월 31일, 마을박물관을 개관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 박물관 입구에 큰 무대를 설치해 마을음악회를 개최했다.

400여 명의 관객들이 참석했는데 출향인들과 시 관계자들, 이웃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했다. 음악회에 참석하는 뮤지션들은 마을의 청년부, 여자부, 남자부, 소년부 한 팀씩, 이웃마을 기타 합주단과 우쿨렐레 연주단 등 외부 초청팀이 7~8팀이었다.

마을주민들은 의상을 통일해 손님들을 맞았고, 두 시간 여동안 한바탕 마을 축제가 열리는 마을박물관 한 편에서는 작은 장터를 운영해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포장해서 판매했다.

마을음악회를 준비하면서도 고상스럽기는 했어도 함께 노래하고 그람시로 마을 화합이 겁나게 잘 되어부렀다. 음악회하고 마을박물관이 테레비에 나오니까 어른들도 좋아하고 타지에서도 우리마을에 관심 가져불고, 워찌코롬 우리마을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느냐 묻기도 허고, 농촌체험마을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다고 허는디 우리마을은 야그들맹키로 걸음마 수준이니께 천천히 해불란다. 어르신들 떠나시기 전에 풍물놀이도 단디 배워불고.

마을음악회 준비하면서도 고상스럽기는 했어도 함께 노래하고 그람시로 마을 화합이 겁나게 잘 되어부렀다



타지에서도 우리마을에 관심 가져불고, 워찌코롬 우리마을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느냐 묻기도 허다



원오봉마을에는 밭이 하나 있었다. 마을소식지란 씨앗을 심었는데 주민들의 관심 속에 마을박물관으로 자라났고, 마을음악회로 꽃이 피었다. 예술이란 본디 즐기고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 꽃의 향기가 널리 퍼지면 한계를 벗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예술 밭’이 늘어나지 않을까. 굿거리장단의 풍년가처럼 원오봉마을 주민들이 2년 여간 일군 밭농사가 늘 풍년이 되길 바란다.



정읍
원오봉마을의
이모저모

원오봉마을 음악회



마을박물관을 개관일인 8월 31일. 초대 손님들과 마을주민들이 직접 출연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시골마을음악회라고 해서 작은 무대를 생각하면 착각. 마을주민들은 어느 마을축제보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다. 2013년에 1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행사는 매년 진행될 예정이다. 음악회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마을에서 나고 자란 농작물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작은 장터가 열린다.

정읍
원오봉마을
박물관



마을박물관

2012년. 문 닫은 지 30년 된 마을의 이발소를 마을주민들 모두가 재단장해 마을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농기구와 생활용품 등 마을주민들이 내놓은 물건에는 기증자 이름이 달려있다. 개관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박물관 문 앞에는 밤새 주민이 물건을 놓고 간 예비 전시품들이 있다. 덕분에 박물관의 전시품들은 매일매일 늘어난다.

한눈에 보는

원오봉마을의 성공 노하우 전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정안성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농외소득의 주된 방법을 체험마을로 삼지만 원오봉 마을은 첫 시작을 문화예술마을로 삼았다. 원오봉 마을주민이 직접 그린 벽화와 마을박물관이 이를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열리는 원오봉 마을음악회는 다른 농촌마을에서 보여주지 않은 다른 차원으로 도시민의 발길을 유도하고 있다.



마을의 성장동력 발굴

원오봉마을은 마을리더와 주민, 출향민들의 추진력으로 마을 성장동력을 발굴해 주민의 행복을 추구할 뿐 아니라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 마을발전과 주민 행복은 의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으로부터 얻어진다는 값진 교훈을 남겼다.



공동체 의식 강화

원오봉마을을 찾는 제일의 도시민은 출향민이다. 원오봉마을은 출향민을 위한 마을소식지 출간하여 활발한 마을의 활동과 변화를 알리는 한편, 마을에서 여는 음악회에 초대하며 출향민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마을주민들에게는 애향심을 고취시켰다.

우리고
의미
가 담긴



전남
전통
문화



민
생
이
는
마을



전라남도 보성군 북내면에 위치한 봉천리가 '메주익는마을'이라 불리기 전까진 보성에서 게으른 마을이었다. 인근 순천에 주암댐이 건설된다고 했을 때 마을주민들은 관광지 개발과 농외소득을 기대했지만 주암호 안개로 농사짓기가 힘들어졌고 주민들을 고향을 떠났다. 그때 안개피해보상금으로 메주방을 지었는데 운영이 잘 안 되었다. 그러기를 몇 년, 식어버린 메주방에 온기가 채워졌다.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고 부터다.



전라남도 보성군 북내면 봉천리 일대

식어버린 메주방에 채워진 온기, 마을주민 가슴을 어루만져준 메주익는마을이란 이름

보성 메주익는마을



우리마을의 색깔은
콩타작 소리여~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종경 위원장
전남 보성 봉천 메주익는마을

“보성에서 가장 깨으른 동네였는데 지금은 노는 분이 없당께요”

“아따 오늘은 더 늘어부렀네. 마을분들 다 나오신 거 아니어라?”

“아, 뭐더? 빨리 혀 봐~. 이번엔 뭘 하면 되야? 뭘 해볼까?”

한 달에 두 번하는 마을회의. 요즘은 한 집서 두 사람씩 나오고 혀서 120명이 넘게 회의에 나와분다. 예전에는 한 20명 나올까말까. 약주 한 번 드시고 욱혀고 가시믄 끝이었는데 지금은 눈빛들이 반짝반짝 해분다.

우리마을로 치자믄 옛날만 혀도 350가구가 사는 보성에서 제법 큰 동네였는데 지금은 반도 안 되어분다. 주암댐이 지어지고 관광지가 된다쑤고 혀서 마을주민들이 들뜨고 그란는데 주암호로 토지가 80% 들어가고 혀믄서 인자 발밖에 안 남아부렀다. 수물 된 땅 주민들은 보상금 받아 고향을 떠나부렀고, 마을은 해묵을 것이 없었다. 참말로 죽어있는 거나 다름없는 마을이었제. 그마저도 발농사 좀 짓는다 혀면 주암호에서 안개가 와가지고 농사도 잘 안 되어붙고, 그때 생각허믄 막막혀고 그렀다.



봉천 메주익는마을 이종경(48) 위원장은 마을주민 회의를 소집하면서 가끔 이전과 사뭇 다른 회의 분위기에 고무된다. 마을에 일거리가 없어 다른 마을로 품앗이를 하러 가던 주민들이었다.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인가보다’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지 마을에서 뭘가 할 것이란 생각도 못한, 당장 먹고 살기도 피곤한 몸들은 회의가 있다고 혀도 모이지 않았다.

6년 전, 주암호 안개피해보상금으로 마을의 숙원사업인 메주방을 만들었을 때 반짝 희망을 품은 적은 있었다. 하지만 건물만 지어졌을 뿐 관리도 운영도 되지 않아 이내 창고가 되어버렸다. 마을주민들은 다시 다른 마을로 품앗이를 하러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을 떠났다.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현장포럼을 하며 마을주민들은 자원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 마을로 귀농한 이재청 부녀회장 눈에 메주방이 띄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저 창고는 뭔가요?”

“아따~ 창고 아니여. 안개피해보상금인가 뭔가 받아가지고 메주방이라고 지었는데 지금은 안 써부러.”

“이장님. 메주방을 놀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요?”

“이장님. 메주방을 놀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요?”



솔직한 말로 나가 마을에서 쫓겨 어린디 마을대표가 되니깐 어르신들이 기득권을 잘 안 내 줄라 그랬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야부네. 감개가 무량하구마잉~”

내가 이것저것 안 해본 거시 거의 없어분다. 빙어도 일본으로 수출 해볼고, 생고기 집도 해볼고, 가금도 해볼고. 2011년 10월, 나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부녀회장님 말을 듣고 메주방을 살려서 마을사업을 할 수 있게 비봉영농조합법인을 딱 설립했다.

솔직한 말로 나가 마을에서 쫓겨 어린디 마을대표가 되니깐 어르신들이 기득권을 잘 안 내 줄라 그랬다. 불평불만도 많이 듣고, 그런데 2년에서 2개월 모자란 시간 동안 위원장일을 하다봉께 어른들이 다 인정해줘분다. 시골촌놈이 행정일도 모르는데 일하다가 관청에서 부르면 가고 허다봉께 마을이름도 짓고, 뭘시여 거시기 마을 로고도 내손으로 맹글고, 밤도깨비마냥 새벽마다 밭 로터리치고, 거름뿌리고, 아따 고생 참 허벌나게 많이 했지. ‘내는 마을의 심부름꾼이다’ 이래 생각했다.

메주방이 콩을 심은 계기가 됐다. 주암댐 상류라 농작물에 농약을 칠 수도 없었다. 친환경으로 기르기에 콩이 안성맞춤이었다. 이 위원장은 수몰이 되어 거의 쓰레기장처럼 있었던 토지를 직접 일구어서 밭을 치고 콩을 심었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야부네. 아따~ 참말로 감개가 무량하구마잉~”
 1년이 지나 콩을 수확했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콩을 수확하고 난 뒤에는 양파와 마늘을 심었다. 그렇게 해서 첫 해는 양파로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일거리가 없어 비어있던 마을주민들 주머니가 곰비임비 채워져 갔다.
 마을에 노는 땅뿐만 아니라 폐가도 정리를 했다. 폐가를 정리하는 와중에 폐냉장고를 주웠는데 이를 군에 팔아 얻은 이익금으로 마을살림에 보탬다. 마을에 공동소득이 생기면 이 위원장은 마을 회의를 거쳐 마을어르신들 효도여행을 보냈다.
 마을에 생기가 돌면서 귀농하는 이들도 늘기 시작했다. 작년에 보성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마을이 이 마을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좋은이웃 밝은동네상’도 수상했다. 덕분에 마을주민들의 자긍심도 오르고 마을 이미지도 좋아졌다.

“우리마을의 색깔이 콩으로 시작해서 콩으로 끝나는 콩마을이 되야불겠제”
 우리마을이 현재 121가구, 238명이다. 예전에 비하면 역수로 적은 것이기는 해도

300가구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그럴라든 우리마을 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산을 개간해가지고 거기에 매실을 심는 방법, 손두부 공장을 짓는 방법, 올레길을 만드는 방법 등을 고안 중이다. **손두부 공장 지으면 우리마을의 색깔이 콩으로 시작해서 콩으로 끝나는 콩마을이 되야불겠제.** 요래 점점 연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거기에 필요한 지원만 좀 잘 되었으면 싶다.

메주익는마을 상표를 달고 만들어진 고추장, 된장은 메주익는마을 온라인 장터와 행사장터에서 판매를 하는데 반응이 좋다. 친환경 콩과 맑은 물, 전통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장과는 확실히 맛이 다르다.

창고로 쓰였던 메주방에는 4개의 가마솥과 아궁이에 불을 지필 장작이 있다. 초반에 장작은 청년회에서 직접 나무를 패서 만들었다. 그 장작으로 눈비를 다 맞고 주민 어르신들이 새벽 2시에 와서 불을 지폈는데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 그 모습을 군에서 보고 간 후 장작 지원을 해주게 되었다.

가마솥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 열기는 메주방에 주민들 쉬는 공간에 온도를 높이는 데 쓴다. 마을에서 '땃가이버'라고 불리는 이 위원장이 개발한 보일러다.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전에는 죽은 마을이나 다름없었다. 옆집에 관심만 많아붙고, 서로 헐뜯고. 그런데 회의를 하고 현장포럼을 땃기문서부터 마을주민들이 단합이 되었다. 식사하는 시간도 늘고 그란께. 주민들이 정말 마음 속으로 갖고 있던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을 했는데, 뭐랄까. **다른 마을도 어느 입김 좋으신 양반들 위주로 가지 말고 주민들 생각을 많이 반영하든 우리마을 메주방처럼 죽었는 게 다시 살아도 나고 마을도 살아나고 그라지 않을까 싶다.** 그때는 선진지 견학을 가는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마을로 견학을 와부니까 축스럽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하고 그란다.

일거리가 없어 비어있던 마을주민들 주머니가 곰비임비 채워져 갔다



메주익는마을을 인생으로 보고 그 일대기를 그래프로 그려 표시한다면 상승선과 하향선으로 두 개의 산 모양이 나타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부침을 겪는 중에 주민들이 느낀 기대와 실망은 불화와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굴곡진 삶은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법.

요즘 메주익는마을의 겨울은 메주방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김처럼 따뜻하다. 봄은 콩밭의 모종처럼 초록빛이며, 여름은 그들이 만든 장처럼 맛있고, 가을은 마을을 채우는 콩 타작소리처럼 경쾌하다. 콩 찌는 메주익는마을에 사계절 내내 미소가 걸리는 이유다.



한눈에 보는

메주익는마을의 성공 노하우 전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박종철



마을리더의 리더십

메주익는마을의 변화는 마을의 대표가 이종경 이장이 되고, 귀촌한 이재청 부녀회장이 마을에 놓고 있던 메주방을 재발견하면서부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출자방식의 경제공동체 조직인 비봉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주민들의 일자리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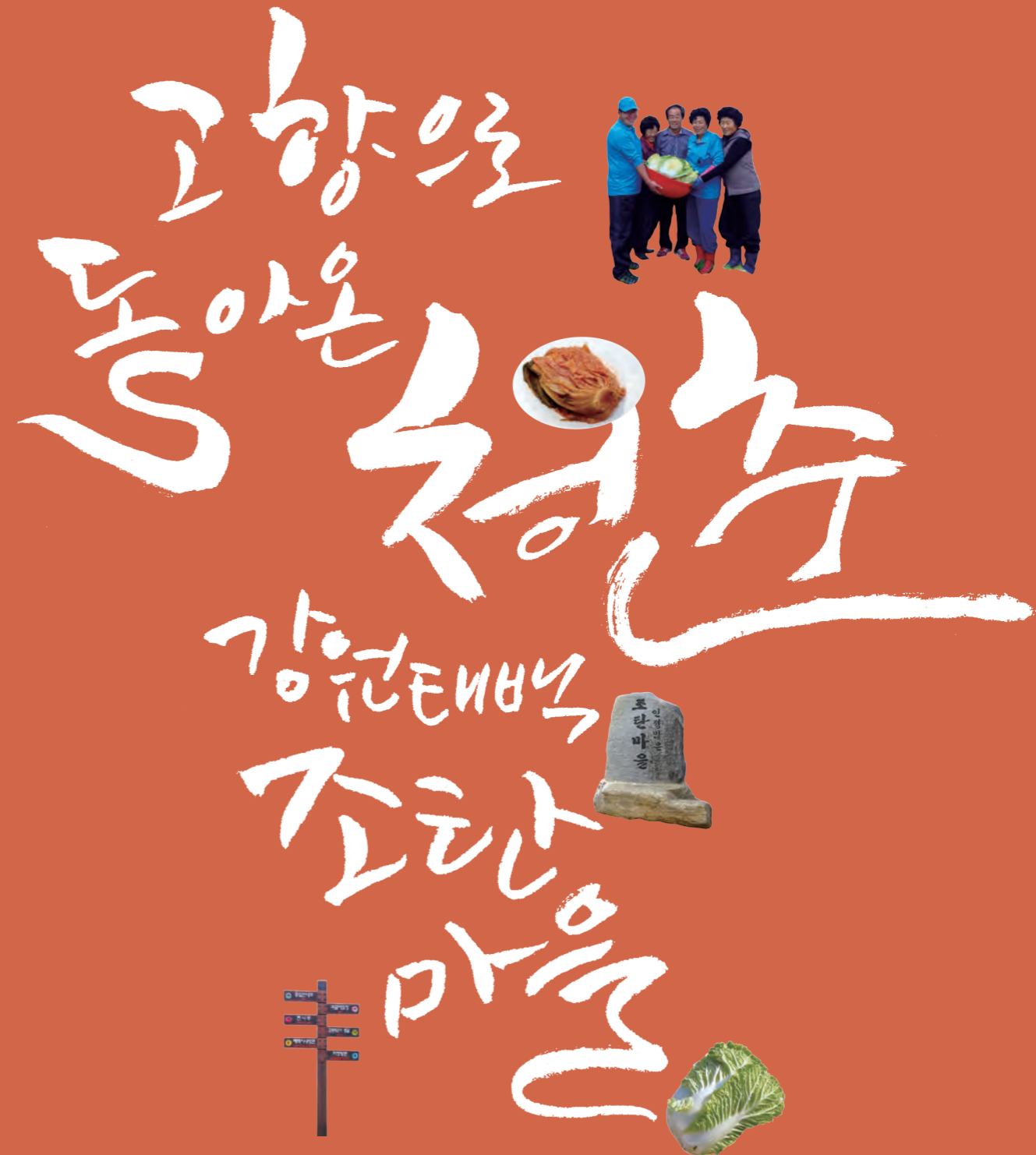
마을공동발 조성

주암댐 인근의 청정지역인 마을은 친환경농산물과 품질 좋은 콩 생산이 많은 지역이다. 고령화로 인해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대지, 농사 포기 농가토지 임차 등을 통해 마을공동발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콩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소득창출의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여성일자리 창출

메주익는마을의 상품을 마을의 부녀회 회원들이 만들면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덕에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일거리가 없었던 더 많은 마을의 여성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객지에 나가 동지를 틀었던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귀농과 귀촌이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30~40대에게는 드문 일. 그 덕에 강원 태백 조탄마을의 청년회가 몇십년 만에 부활했다. 한때는 금을 캐던 곳이었지만 30년 전 문을 닫은 마을의 폐광산 갱도도 오랜 잠에서 깬다. 조탄마을이 이처럼 젊은 마을이 된 데는 부녀회원들의 역할이 컸다. 조탄마을은 이제 정뿐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마을이 됐다.

680m고도에 해풍으로 자연이 숨쉬는 마을, 자연을 닮아 인심도 넉넉한 마을

강원도 태백시 조탄동 일대



태백 조탄마을



우리마을의 색깔은
아삭아삭 이드래요~

양채봉 위원장
 태백 조탄마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동굴 속에 김치를 해 봤는데 아삭아삭 맛이 있습니다”

묵은지를 만들어 넣은 지 4년 됐다. 원래 우리마을이 금을 많이 캐터랬다. 근데 고마
 금을 안 캐니까 방치가 된 동굴이 있었다. 우리 부녀회원 13명에서 겨울에 김치를 해
 가지고 이고지고 올라갔다. 그때는 지금처럼 도로도 없었다. 이고지고 올라가서 동굴
 속에다 넣었다. 근데 2년이 지나서 김치를 꺼냈더니 아삭아삭한 것이 아주 특수한
 맛이 났다.

“시장님, 저희 동굴이 하나 있는데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왜요, 동굴에 뭔가 있습니까?”

“동굴 속에 김치를 해 봤는데 너무너무 맛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잡춰 보시고
 사업을 구상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시고 시장님이 오셔서 김치를 잡춰보셨다. 그리고는 진짜 맛있다면서
 서울에 있는 식품 박사님을 모시고 오셨다. 박사님도 온도도 적합하고 맛도 좋다고
 하셨다. 온도계도 내가 사다가 다 달아놨던 것이다. 동굴 안은 암석이라 물이 좋은데
 미네랄이 들어 있는 1급수다.

양채봉 위원장(60)이 사는 태백 조탄마을엔 지금은 문을 닫은 지 30년도 넘었지만
 금을 캐던 금광이 50~60곳이 있었다. 마을 입구에 있는 황금방아가 이 마을의 역사를

보여준다. 당시 금광에서 캐온 광석은 물레방아로 빻은 뒤에 물 속에 수은을 넣어 금가루를 빨아들였다고 한다.

위원장의 남편 신길선 씨도 20살 때는 광차를 몰고 다녔다. 그는 태백의 인구 수가 그때만 해도 11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4만 명에서 5만 명이니 그때의 절반가량밖에 안 된다고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 황금방아가 있던 자리는 원래 초등학교가 있었다. 학생들이 다 떠나고 어른들만 남은 지금, 마을에 학교는 없다. 대신 터에서 배추를 절이거나 과즐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등 마을 잔치를 여는 광장으로 쓴다.

“금광에서 자연숙성된 묵은'금'지 맛 보실래요?”

내가 자란 삼척과 달리 태백은 동해가 가차워 해풍이 불어 농작물에 영향을 준다. 고랭지배추가 맛있는 것도 낮은 기온과 해풍 덕이다.

“동굴 속에 김치를 해 봤는데 너무너무 맛이 있습니다”



“금광에서 자연숙성된 묵은'금'지 맛 보실래요?”



근데 고랭지배추는 특성상 버리는 게 많았다. 야~ 이거는 아니다 싶었다. 그래서 상품은 대도시로 팔고, 상품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인제 김치를 해서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마을 부근에서 동굴 속에 김치를 넣은 것은 우리마을이 처음인 것 같다. 우리 인간에게 금이 이롭다는데 금광이었다보니 지금은 금이 보이지 않아도 묵은지 안에도 금의 기운이 스미지 않을까.

콜라비, 브로콜리, 참곰취, 풋고추 등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 외에도 태백에는 고랭지배추가 유명한데 이것 역시 양 위원장 세대가 심기 시작한 것이다. 양 위원장이 태백으로 시집 온 것은 19살. 이 지역은 땅이 좁다보니까 특수작물을 많이 못하고 감자를 심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 배추를 이모작한 것이 이 지역 고랭지배추의 효시가 됐다.

묵은지 사업을 하기 전에는 과즐이 유일한 농외 소득원이었다. 과즐이란 태백에서는 '까실'이라 불린 전통과자인데 옛날 부잣집에서 잔치가 있을 때 만들어 먹던 것이다.

마을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특히나 농한기 때 뭐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싶어서 시작한 사업이었다.

양 위원장을 위시로 푹푹 뭉친 13명의 부녀회원들이 이번엔 폐광산 갱도를 '묵은지 동굴'로 만들었다. 원래는 마을사람들끼리 김장 김치를 이 동굴에 저장해서 먹었는데 먹다 보니 맛있어서 이것을 크게 사업화 시킨 것. 220m길이의 동굴은 내부 온도가 사계절 내내 5~7℃로 유지되어 김치가 자연적으로 숙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마을사업을 더 단단하게 해 준 건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를 신청하고 현장포럼을 실시했다. 마을사업에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우리 마을 유래가 이래이래있는 줄 몰랐지”



날개를 달았다. 마을주민들의 뜻을 모아 마을 공동자금으로 땅도 사고 폐광도 묵은지 동굴로 개발했다. 동굴 안에 새로 바닥을 깔고 전기도 새로 달았다.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현장포럼이 재밌는 기 마을 보물찾기라는 걸 하는데 마을 유래를 이제서야 안 것도 있다.

“우리마을 도롱골이 왜 도롱골인지 압니까?”

“우린 그냥 시집와서 살기만 했는데 그걸 우에 압니까”

“도롱사란 절이 있었다가네”

“아하~ 그럼 우리 까실 만드는 것도 도롱골 이름 붙여써가든 되겠네”

묵은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9,10월이 되면 도시민들이 와서 즐기는 묵은지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현장포럼 자원찾기를 통해 발굴한 사업이다. 직접 만든 것은 항아리에 이름표를 붙여 묵은지 동굴 속에 보관 숙성을 했다가 원하면 체험자에게 택배로 보내준다.

체험해서 맛을 본 사람들은 전화 주문으로 구입하기도 한다. 초창기 판로는 태백시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등 시의 도움을 받았다.

묵은지 체험행사가 끝나고 12월이 되면 과즐체험 행사를 연다. 체험 행사 뿐 아니라 명절을 앞두고는 판매도 한다. 올해부터는 조탄마을의 옛이름인 '도롱골'을 활용해서 '도롱골 과즐'이라는 마을 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이다.

우리 부녀회는 55세부터 70대까지 13명이 푹푹 뭉쳐서 모든 일을 시작만 했다하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리더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해도 흑시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이해를 잘 해 준다.

첫째는 아무리 바빠도 “오늘 뭘 해야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모여주십시오”하고 방송을 하면 1분 내로 다 와주신다. 이만큼 오기까지도 주민들 협조가 없다면 올 수가 없었다.

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의가 상할 일은 없었다. 부녀회장하면서 어찌 화 한 번 안 냈겠나. 성격이 고약스러워서 회원들한테 뭐라고 한다. 내가 봐서 조금이라도 아닌데 싶으면 야단을 하는 거다. 그런데 지나보면 ‘괜히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

우리마을에 젊은 사람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실제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마을에는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많이 고맙다. 12명 중에서 8명이 객지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다. 35살부터 45살까지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 뭐 객지에서 버는 것만큼 수입이 되는 것 같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12명 청년회가 조직이 됐었는데 그때는 이사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회가 없으면 못한다. 220m가 되는 긴 동굴에 3천여 포기의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

김장 김치를 영는데 항아리만 해도 지금 2백여 개가 넘는다. 청년회가 도와줘서 일이 쉬워졌다.

우리마을이 젊은 사람이 더 많이 들어와서 공장시작한 것도 잘 되고 주민들이 잘 사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을에서 아기울음소리가 난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마을에 인구가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다.

태백시에서는 묵은지 동굴 앞으로 모노레일을 놓을 예정이다. 관광객 유치 위해서도 마을주민들의 수월한 작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 여겨서다. 작은 마을의 부녀회와 마을주민들의 부지런한 움직임 덕에 관광 인프라가 형성된 것. 이렇게 되면 ‘묵은지’라는 우리 전통음식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상상해보는 것도 어렵지 않을 듯하다.

태백
조탄마을의
이모저모

묵은지 동굴



한때 금광이던 220m의 긴 동굴에 길게 늘어진 항아리들 위로 전기불이 설치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전깃불이 꺼진 곳에는 아직 금이 남아있다는 후문이 있다. 묵은지 동굴로 올라가는 길은 마을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노랑금방이



금광촌을 재현한 황금방아가 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일제시대 때 이 마을에 대규모 금광이 있었고 금을 선별하기 위해 큰 방아가 24 척이나 있었다 하는데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모형으로 제작해 놓은 것이다.

숫대공원

마을 수호신의 상징은 숫대가 세워진 숫대공원이 마을입구에 자리해있다. 공원 내에는 마을 주민들이 국화를 식재하여 가을철 관광객들의 발길을 끈다.



과즐 누세험장

겨울이 오면 마을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수수로 태백의 전통과자인 과즐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한눈에 보는

조탄마을의 성공 노하우

강원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김기성



마을리더의 역발상

폐광마을이 묵은지 김치를 담그는 마을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의 부녀회장이 수십 년 전 문 닫은 마을의 광산 갱도를 김치 저장고로 쓰자는 생각을 하면서부터다.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된 것은 마을리더의 역발상과 이를 사업으로 확장하여 소득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추진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마을공동작업의 생활화

조탄마을이 과줄과 묵은지 등 마을기업 상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전 마을주민의 화합이 있기에 가능했다. 양채봉 위원장을 위시로 고랭지 채소경작부터 오랜 시간 함께한 마을 공동사업은 위원장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신뢰와 단합된 역량으로 마을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에 마을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의 실시와 경영마인드의 도입은 소득향상에 기여했다.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조탄마을의 양채봉 위원장은 묵은지를 만들고 태백시에 연락을 취해 관계자들의 마을 방문을 요청했다. 조탄마을은 태백시의 지원을 받아 묵은지 동굴을 개발하고 체험행사를 개최해 마을의 상품을 널리 알렸다. 태백시의 참여로 조탄마을의 묵은지는 상품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김기성은

인간향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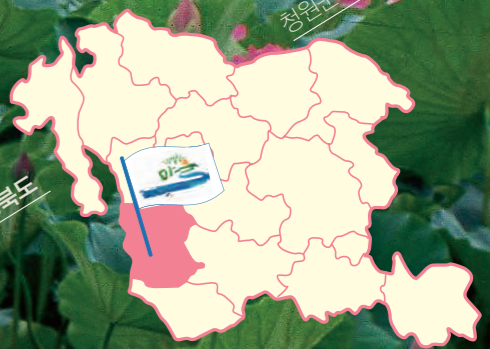
인간같은 마을

충분치요전

인간향 마을



충북 청원군에 있는 궁현2리는 평균연령 65세의 마을주민 70기구가 사는 평범한 농촌마을이었다. 마을 연못에는 해마다 수련과 백련이 피고, 주민들은 친환경 농법으로 고추와 콩, 들깨와 참깨, 그리고 벼농사를 지었다. 2012년 현장포럼을 실시한 후 궁현2리 주민들은 청원 연꽃마을의 '선생님들'이 되었다. 마을에서 난 유기농 쌀과 콩은 체험객의 손을 거쳐 말랑말랑한 인절미로, 연못이 떠있던 연잎은 연잎갈국수로 변신했다.



청원 연꽃마을

새벽녘 연꽃 피는 소리에 잠 깨고, 마을 방앗간 고소한 향기에 눈 뜨는 마을



우리마을의 색깔은
소통입니다~

이동신 위원장
충북 청원 연꽃마을

“이장님 저희가 또 놀러갈게요, 제발 놀러가게 해주세요”

글쓴이 : 몽계

연꽃마을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우리는 무지개어린이집 몽계구름반이에요. 연꽃 선생님, 어제 우리와 함께 연못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궁금해 했던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달에 어린이집에 오세요. <연못프로젝트>가 끝날 때 재미있는 것을 할 거예요. 꼭 오셔서 우리랑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 몽계구름반 올림 -

↳ 글쓴이 : 얼룩소

안녕하세요? 무지개어린이집 몽계구름반 친구들. 여러분과 같이 연못을 만든 연꽃마을 이장 이동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설명을 잘 듣고 수생식물을 심었지요? 심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언제 방문했을 때 수생식물들이 활짝 웃는 모습 볼 수 있게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무지개어린이집 몽계구름반 어린이 화이팅!

글쓴이 : 김윤진

마을 이장님. 저희가 거기 가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방아깨비랑 개구리를 잡은 거 무지 죄송해요. 거기 놀러가게 되면 다신 안 그럴게요. 이장님 거기는 감자가 싱싱해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거 맛있어 보인다 하시면서 감자를 찌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찌주신 감자에다가 김치를 싸서 먹었는데 무지 맛있었어요. 이장님. 저희가 또 놀러갈게요. 제발 놀러가게 해주세요. 그때 동안 건강하셔야 되요.

↳ 글쓴이 : 얼룩소

윤진학생. 개구쟁이 시절엔 개구쟁이답게 놀아야지요. 체험한 감자를 가족과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군요, 그래요. 또 놀러 오세요. 우리마을 대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장마철 건강 조심하구요.

↳ 글쓴이 : 김윤진

진짜요? 감사합니다.

충북 청원 연꽃마을 홈페이지 체험후기 방에는 정다운 이야기가 오간다. 체험객으로 왔던 학생이 남긴 후기에 이동신 위원장(61)이 정성어린 답글을 달았다. 어린 체험객들의 동심을 헤아리는 이 위원장의 노력은 체험을 진행하면서도 보인다.



마을 이장님. 저희가 거기 가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방아깨비랑 개구리를 잡은 거 무지 죄송해요. 거기 놀러가게 되면 다신 안 그럴게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머~억지~ 자, 1반과 2반이 시합을 해서 떡 메치기를 할 거예요. 누가누가 잘하나~”

체험객들이 떡메를 치고 조물조물 반죽해서 만든 떡은 마을에서 유기농으로 기른 잡쌀과 콩으로 빻었다. 메뚜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는 연잎을 갈아 넣은 밀가루로 반죽을 한다. 점심식사로 나온 연잎칼국수를 앞에 두고 체험객들은 다들 와~ 하고 놀란다.

“여러분이 빻은 반죽으로 만든 칼국수예요. 연잎은 몸에 좋아요. 많이들 드세요.”

“우아~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다!”

“우리마을도 연꽃처럼 친숙한 마을이 되보자 했다”

이동신 위원장은 2010년 연꽃마을의 이장으로 선출되었다. 연꽃마을이 농촌현장 포럼을 실시한 것은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녹색농촌마을조성사업이



“사실 멀리 가지도 않고 옆에 옥천이나 이런 디는 자원이 좋은디 우리마을에는 큰 산도 없고, 계곡도 없잖여유”



진행되던 때였다. 2004년 관광농업개발 시범사업 마을로 선정되어 다목적 광장이 조성되고, 홈페이지가 구축되었지만 활용도는 다소 낮은 상태였다.

나야 그동안 마을리터교육이다 뭐다 하고 받아 봤지만 마을주민들은 현장포럼이 처음이니까는 다들 뭐하는 건가 싶어 회관에 나왔다.

“얘기 좀 들어봐유. 사실 멀리 가지도 않고 옆에 옥천이나 이런 디는 자원이 좋은디 우리마을에는 큰 산도 없고, 계곡도 없잖여유. 7,8월에는 헐 것도 없구.”

“그려. 여름에는 나나노지. 헐 일 없어서 술만 먹어서 좀 그러긴 했구만.”

“우리마을에 있는 자원을 찾아봐유. 그걸 잘 활용하면 다른 마을처럼 뭔가 일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유?”

“우리마을에 연못이 네 개여. 연꽃 예쁘자녀. 수련, 백련. 다른마을도 있나? 나는 백련이 좋드라. 버릴 것도 없구.”

“거 좋아유. 연못. 우리마을이 연꽃마을이기도 허니까.”

근디 전국에 연꽃마을이라고 불려진 디가 10군데는 되는 것 같었다. 경주에도 있구, 예천, 영암, 창녕에도 있었다. 연꽃이야 우리나라에는 흔하고 친숙한 꽃이니께. 우리 마을도 체험마을로 도시민들에게 친숙한 마을이 되보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허면 좋을까. 마을주민들하고 회의를 했다.

누구는 와 맨날 주구장창 회의만 허냐고 했다. 모르는 소릴 허덜 말라지.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마을대표는 청사진을 내놔야 도리지. 나는 더 많은 분들이 회의에 참석

하게 하기 위해서 잘 나오지 않는 디 가서는 문을 두드렸다. 마을회의 할 거니까 나오셔유~하고. 문자 넣어주고, 전화 넣어주고.

이 위원장은 마을주민들과 회의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짰다. 우선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했다. 연꽃마을답게 연잎과 연꽃을 가공하고 연못을 활용하자는 결론을 냈다. 연잎밥, 연꽃지집이 체험을 사계절 진행할 수 있게 수확한 연꽃과 연잎은 급속냉동을 시켜놓는다.

경운기와 이양기 등을 두었던 농기구 보관창고는 리모델링해서 농작물 가공설비로 채웠다. 체험지도사 교육을 통해 마을주민들은 ‘연꽃마을 선생님’이 되었다.

연꽃마을을 찾는 체험객은 단체 위주로 하루에 두 팀 정도. 1년에 4천5백~5천 명이 다녀간다.

전국에 연꽃마을이라고 불려진 디가 10군데는 되는 것 같었다



자리잡은 체험마을, 6차 산업에 기대를 걸다

연꽃은 최근 수요가 많아져서 체험활동 재료로 쓰는 것 외에 연밥과 씨도 판매를 한다. 마을의 소득원이 되고 있는 것. 하지만 최근에 연꽃마을의 주소득이 따로 생겼다. 체험마을사업을 진행하며 리모델링한 농기구 보관창고에 방앗간 시설을 마련한 것이다. **청원 연꽃마을방앗간이 그것. 방앗간에서 얻은 소득은 연말이 되면 마을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시스템이다.**

떡과 미숫가루, 참기름, 들기름 등 마을에서 난 것을 좋은 가격에 사서 가공해 판매하는데 **생산자인 마을주민들에게도 소비자인 도시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생산에서 가공까지, 연꽃마을은 요즘 6차 산업의 모형을 되고 있다.**

우리 방앗간에서는 우리마을 거라고 해도 농약을 쳤으면 안 산다. 다니면서 본다. 농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올해 고추농사 짓는 것도 식초에다 계란을 희석해서 벌레를 쫓았다. 그야말로 친환경 농법이다.

9월 초에 농협중앙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체험을 왔다. 영양제 치는 방법에 희석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그날 고추 엄청 팔았다. 연꽃하면 청정함의 상징인데 청원 연꽃마을 방앗간이라고 그래놓고 친환경 아닌 것을 내놓을 수는 없다.

처음에는 이 방앗간에 투자하는 대신 멜로디 분수대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연꽃마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라 사치라고 생각했다. 멜로디 분수하고 방앗간 허고 뭐가 낫겠냐고 주민들과 회의를 거쳐 방앗간으로 꾸민 것이다.

체험마을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이 6차 산업이 자리 잡을 차례다. 우리마을이 6차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전처럼 7,8월에 일 없어서 노는 가난한 마을이 아니라 풍요로운 마을이 되지 않을까.

연꽃에는 10가지 덕이 있다. 어떤 곳이든 맑은 줄기와 잎을 유지한다는 '본체청정', 연꽃잎에 티끌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불여악구'... 그중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과 어울리는 것은 '계향충만'이다. 연꽃이 피면 물속 냄새가 사라지고 향기가 연못에 가득



연꽃하면 청정함의 상징인데 청원 연꽃마을 방앗간이라고 그래놓고 친환경 아닌 것을 내놓을 수는 없다

하다는 뜻이다. 2012년 첫 현장포럼 실시 후 충북 청원 연꽃마을은 평범한 마을에서 희망이 가득 찬 마을이 되었다. '계향충만'한 마을이 '본체청정'하고 '불여악구'함을 잃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청원 연꽃마을의 이모저모



연꽃마을 안에는 백련과 수련 등 다채로운 수생식물이 자라는 네 곳의 연못이 있다. 이 연못에서는 5월에는 수련이, 7월에는 백련이 피어 9월까지 연꽃향기가 마을에 머문다. 이 중 가장 큰 연못에서는 낚시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블루길 등 붕어체험이 가능해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많다.

연못

은적산
단군성전 및
봉수대

연꽃마을과 강내면 저산리 사이에 있는 은적산 정상에는 단군성전이 있다. 단군성전은 우리나라의 첫 왕조인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의 영정이 있는 사당. 이곳에서는 단군의 기일인 음력 3월 15일 단군제사를 지내며 '청원 군민의 날' 등 청원군의 크고 작은 행사 때 성화 채화가 이루어진다. 단군성전 아래쪽에는 고려시대의 봉수대가 있던 터여서 봉수대를 복원해두었다.



연꽃마을의 황토찜질체험방은 50평 규모의 펜션형 숙박시설로 이곳에서는 20명이 동시에 찜질체험을 할 수 있다. 재래식아궁이로 군불을 지피는 황토찜질방과 휴식과 수면을 위한 방이 2개 있으며 거실과 남녀 샤워실, 주방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숙박은 물론 당일이용도 가능하다.

황토찜질
체험방



한눈에 보는

연꽃마을의 성공 노하우

충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리신호



마을주민 소속감

도시와 멀지 않은 연꽃마을은 귀촌인 비율이 높은 편이나 대부분 마을 일에는 관심이 없는 편이었다. 마을일은 마을주민 모두가 다 알 권리가 있다는 지론으로 이동신 위원장은 마을회의시 마을주민들의 참석율을 높였다. 마을주민 한 명도 소외되지 않은 마을회의는 마을주민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했으며 마을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체험객을 소비자로 연계

연꽃마을은 기존의 학생 위주의 체험객이 아닌 인근 도시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체험객을 유치하며 지역생산 농산물의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게 했다. 재배과정이 눈으로 확인되면서 친환경 농업에 의한 농산물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였다. 입에서 입을 통한 홍보로 꾸준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계별 마을 사업 운영

연꽃마을은 그동안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체험마을에서 자립마을로의 기반을 닦는 생산·가공 체험마을로 탈바꿈하기 위해 마을 주민 공동으로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의 화합과 이익의 재분배를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방앗간에서 생산된 찹쌀, 흑미, 고추가루, 맞춤떡 등은 방문객 및 구매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169_전남 강진 청자골달마지마을

183_경기 양평 청운 여물리체험마을

197_충남 보령 장발 은행마을

211_경북 예천 금당실마을



윗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맛을 이어갈 후임자들이 없는 게 제일 안타깝제. 손맛은 정말 중요한 무형문화재인데 요즘 사람들은 참말로 가볍게 생각혀~ 고춧가루가 어디 다 똑같은 농도인가? 아니제, 아주 매운 거. 중간치, 안 매운 거. 양파도 마늘도 농도가 다 다른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스푼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당가.

그래서 꾸러미 사업을 하는 것이다. 사업이 잘 되불른 우리 남도의 맛을 보존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다.

- 전남 강진 청자골달마지마을 이운배 위원장

타감꽃이
피노아는
전남
강진
고
수경리
다들미끼
마을



‘대월(待月)마을’이라 했다. 큰 대(大)자가 아니라 ‘기다리다, 맞이하다’의 의미를 지닌 대(待)자를 쓴다. 월출산이 품고 있는 달마지마을의 이름은 그렇게 지어졌다. 10년 전, 이 마을은 달을 맞이하듯 사람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달이 환하게 비추는 마을에서 사람꽃이 피어 비추는 마을. 그리고 2012년부터 시작한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로 그 꽃의 향기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달빛 머물다가 간 자리, 사람꽃이 피어 향기로운 마을 되다



청자골 달마지 마을



우리마을의 색깔은
사람꽃 이랑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운배 위원장
강진 청자골달마지마을



시골벽적해진 마을 “아따~ 옛날 생각나고 좋구마잉”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떡 만들기 할거예요잉? 만들어서 찌야 되는데, 찌 수가 없으께 맛있게 바로 해서 드실 수 있게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 왔어요. 애쁘게 만들어보게요잉? 자 여기 보든 장갑이 들었어요. 장갑 두 짝씩 끼세여.”

“안 끼어져여, 선생님.”

오늘 아침 마을을 방문한 목포애향초등학교 1학년생 170명. 우리마을을 찾은 몇 번째 꼬마손님인지 이제는 셀 수가 없어야. 그동안 몇십만이 되는 체험객이 왔으께 10년 동안이든 순서로만 쳐도 몇천 번째는 되불지 않겠어? 시들한 마을이 아이들 목소리로 북적이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년이나 되어분다.

전남 강진 청자골달마지 마을의 이운배 위원장(63). 처음 한 2년만 위원장일을 해보겠다고 한 것이 벌써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다. 내년이면 이제 그만 물러나고 얼른 ‘젊은 놈’을 들여다 앉혀야 쓰겠다고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꿈이다. 1992년 고향에 돌아온 목적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였는데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사업을 해 본 사람이니까 이 위원장더러 이장일을 해보라고 마을 주민들이 권유했다고 한다. “이장만 안 달든 뭐든 허겠지라~” 했는데, 그때가 마침 농촌에서 팜스테이, 체험마을 등이 전개될 때였다. 이장도 마다했는데 위원장일까지 뿌리치기가 ‘커시기’해서 시작한 일이다.

마을주민들의 협조 “다 같이 잘 살면 좋제”

하다봉께 슬슬 재미가 있어분다. 물론 내 돈은 아니지만서도 마을이 발전된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여? 만약 발전도 없이 답보상태에 있었어봐. 사람들이 좋아하나. 아마 내가 계속 허지도 못했을거시여. 열심히 땀 만큼 성장을 하니까 재밌어불고. 마을 분들이 아주 협조를 거시기하게 잘 해줘부러. 힘이 난당께.

뭐 특별한 것은 없다. 처음엔 마을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다가 시작했응께.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굳이 할 필요 뭐 있간. 그러다 점점 체험객들이 원하는 것으로다 맞춰줘불제. 고거시 바로 고객 맞춤형이라는 거여. 그래서 꾸러미 사업이라는 것도 허게 된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마을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허보았지만, 우리마을처럼 월말 결산하는 디가 있능가 몰라. 한 달에 사업하는 거 지출하고 들어오고 하는 내역.

“손님을 맞으니까 마을주민들 인상이 참으로 밝아져버렸당께”



“사람들이 북적거리니 아따~ 옛날 생각나고 좋구마잉”



꼬박꼬박 우리 주민들에게 알아보기 좋게 맹글어놓으니까 주민들도 좋고. 우리도 몇땃하니 좋고. 돈 만지는 데 쪼까 거시기하른 사업 오래 못 가불제~

생기넘치는 마을 표정, “다음에 또 놀러 오드라고”

나 쪼간할 때만해도 우리마을 동갑내기가 7명인가 8명인가 혀다. 아, 근데 지금은 말이여, 초등학교 4학년 하나, 5학년 하나. 그렇게 되고 보니 내 나이 63살도 여기서는 아주 그냥 애들로 쳐분다. 인구 76명 사는 마을에 80살은 먹어야 노인으로 쳐주니 아무래도 마을에 생기가 없어불제.

근데 워며. 체험마을 하니까 우리마을에 손주 같은 애들이 꼬물꼬물하자녀. 한번 왔다 싸악 빠지면 허전허기는 허두 와서 올망졸망 노는 거 보든 그게 또 그렇게 귀엽고만. 이 촌구석이 맨 노인들만 있다가 꼬맹이들이 몇백 명씩 와 봐. 얼마나 아름다워. 우선

보기에도 좋고, 하나의, 그러니까, '사람꽃'인거. 사람 사는 곳이 됐다 이거제.

또 어르신들은 그 시절 생각 왜 안 나졌어. 원래 이 마을에 애들이 100여 명 이상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애들 보기 월매나 힘들어.

아따~ 문화도 많이 바뀌어붙었제. 문화가 뭐랄까. 손님을 대하는 그것도 좀 달라졌고, 서비스 감각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서비스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서비스 감각이 생겼고, 우리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불고.**

마을주민들이 서비스라는 개념을 캐치하니깐. 뭐가 달라 지나 하나, 얼굴이 달라져부렀다. 손님맞으면서 손님 오는데 인상 쓰며 받을 수 없자녀. 장사할 때 도 손님이 오면 밝게 하는 것처럼, 손님을 맞으니까 마을주민들 인상이 참으로 밝아져버렸당께.

꾸러미 사업의 시작은 체험마을 관광객 덕분

이 위원장은 마을 공동수입의 일부는 복지사업에 쓴다고 한다. 마을 어르신들이 80세가 되면 꽃다발과 선물을 주고 잔치를 한다. 자녀들이 멀리 사는 어르신들에게 마을주민이 차려주는 생일상이다.

위원장 경력 10년 차인 이윤배 위원장은 이제 다른 마을이나 관공서에 초대되어 체험마을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한다. 점심 먹은 직후 즐릴 시간. 생생한 그의 경험담은 앞서 진행된 이론수업과는 달리 흥미를 돋운다.

기회가 있어 해외에 농촌관광을 다녀온 적도 있다. 특히



프랑스 농촌관광을 통해 느낀 것은 우리나라 농가와 다른 프랑스의 농가소득 부분. 프랑스 농촌은 우리나라와 달리 농업소득이 30%미만이고, 농외소득이 70% 이상이다. 이 위원장은 그 부분을 마을에 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을 체험객 수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전체소득의 5%에 미친 게 걸린 것. 그런데 운이 좋게도 올해부터 꾸러미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체험마을을 운영한 덕이다. 마을에 체험객들이 체험활동 중 먹은 음식 맛을 못 잊어 마을에서 난 채소와 전라도 특유의 손맛으로 만들어진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맛의 비밀은 '노지'에 있다. 비료나 거름 없이, 자연이 주는 거름으로 기른 채소들은 모양은 구부러져서 불품없이 생겼을지라도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이 마을 것만 먹게 된다고.

올해 2월부터 시작한 꾸러미 사업은 8개월이 지난 후 3천만 원의 소득을 가져다 주었다. 처음에는 40가구의 회원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지금은 80가구의 회원이 마을의 농작물과 반찬을 주문해 먹고 있다.

“요리는 스푼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여”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남도의 손맛이 사라져가는 것이여. 꾸러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실은 그걸 지켜불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들은 손으로 집어서 맛을 보며 간을 맞추었당께. 그게 손맛인거제. 숫자로 계산을 해서 고춧가루 몇 스푼, 양념 몇 스푼으로 간을 맞춘 것이 아니란 것이제. 윗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맛을 이어갈 후임자들이 없는 게 제일 안타깝제. 손맛은 정말 중요한 무형문화재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몰러~ 고춧가루가 어디다 똑같은 농도인가? 아니제, 아주 매운 거. 중간치, 안 매운 거. 양파도 마늘도





“우리 어머니들은 손으로 집어서
 맛을 보며 간을 맞추었당께.
 그게 손맛인거제”

농도가 다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스펀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당가.

그래서 꾸러미 사업을 하는 것이다. 사업이 잘 되불른 우리 남도의 맛을 보존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게 되면 좋을 것이고, 후계자들이 남도의 중요한 손맛을 이어가지 않을랑가.

그래서 나는 이 꾸러미 사업을 잘 한 번 해볼 것이다. 사실 이것 말고도 지켜가야 할 농촌문화가 참 많은디 사라지기 전에 젊은 사람들이 함께 이어갔으면 싶다. 그라문 농촌이 더 활기차지지 않을까.

청자골달마지마을 체험관 벽에는 상패와 기념패가 많이 붙어 있다. 팜스테이우수마을 대상, 농촌진흥청 지정 농촌 전통테마마을 등. 마을주민과 운영위원들이 푹푹 뭉쳐 마을 사업을 진행한 결과다. 자꾸자꾸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곳, 그래서 사람꽃이 피는 곳, 청자골달마지마을의 계절은 언제나 봄이다.



사업이 잘 되불른 우리 남도의 맛을
 보존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다

청자골 달마지마을의 이모저모

마을 돌담길

청자골달마지마을에는 옛 가옥의 모습을 보존한 집이 있다. 돌을 쌓아 만든 돌담길을 따라 가다보면 마을을 한 바퀴 산책할 수 있다.



호랑이 울음소리로 멧돼지를 퇴치했다는 호랑이동굴, 호랑이 모형과 미끄럼틀이 있는 호랑이 동굴체험 놀이터는 아이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호랑이 동굴 놀이터

남도 유배길



다산초당으로 이어지는 다산 정약용의 유배길 코스 중 하나인 삼남대리가 청자골달마지마을을 지나간다.

한눈에 보는

청자골달마지마을의 성공 노하우 전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박종철



마을사업 투명 운영

청자골달마지마을의 이윤배 위원장이 마을대표를 1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투명한 마을사업 운영에 있다. 월마다 마을 운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결산자료는 마을주민이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덕에 체험마을을 시작하는 마을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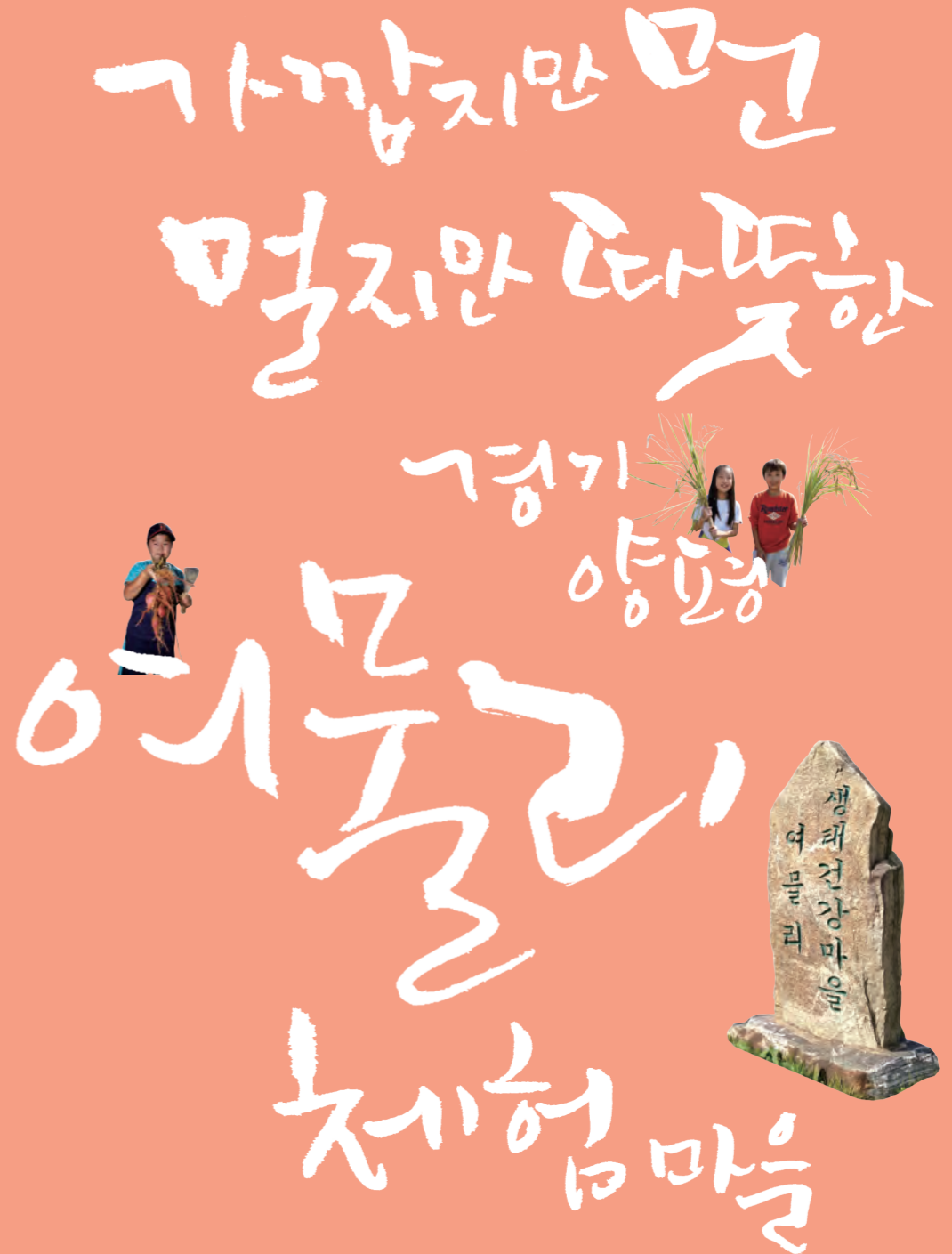
견고한 마을 운영 조직력

청자골달마지마을은 10년간 체험마을을 운영하며 초창기의 애로사항을 보완하여 현재는 위원장, 사무장, 재무가 각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조직의 달마지마을 법인 설립을 통해 마을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평한 마을 소득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연계된 상품 개발

달마지마을에서 판매하는 잣콩나물세트는 콩나물을 키울 통과 마을에서 생산되는 콩, 왕겨와 벗짚을 태운 재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체험재료를 상품화한 것으로는 도롱태도 있는데 전통놀이의 하나인 도롱태 돌리기 체험은 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의 요구에 의해 달마지마을의 차별화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서울에서 당반의 드라이브 코스, 6번 국도를 타고 1시간 반 남짓 가면 만나는 양평. 문화관광 여건이 풍부한 양평엔 '물맑은 양평 농촌나드리'라는 이름으로 21군데의 체험마을이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기지만 마을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2012년 첫발을 내딛은 여물리체험마을 역시 그랬지만 1년도 안 되어 마을 운영 실적이 상위 3위권에 들었다. 체험마을 후발주자로서 성공적인 첫걸음이 었다.



양평여물리 체험마을

곡식이 잘 여무는 여물리, 마을주민 마음에 행복이 여무는 마을 되다





우리마을의 색깔은
엄마의 체온이예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박봉철 이장
경기 양평 어물리체험마을



“체험마을이 뭐여? 옆 마을에서 하는 거 말하는 거여?”

“이장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말도 마. 어제 밤에 멧돼지들이 지 식구들까정 데리고 와서 다 먹어 치우고 갔어. 산짐승 때메 뭘 해먹질 못해.”

“또 내려왔어요?”

“그놈들 지네가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다 내려와서 캐가는 거야. 이 봐. 여기 발자국 하고 똥 싸놓은 거. 고라니는 그래도 점잖게 먹고 가는데, 돼지만 한 번 내려왔다 하면 냅다 쭈셔가지고 가.”

김미혜 위원장이 온 날, 내 속은 우리집 논처럼 속대밭이 되어있었다. 밤사이 멧돼지가 내려와 이제 막 여문 알갱이허고 고구마 싹을 다 먹구 갔다. 하루 저녁에 100평, 200평 먹구 가는 바람에 벼 30가마니는 손해 봤다.

“그런데 웬일이야?”

“아, 논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우리마을 변화의 시작이었다. 김미혜 위원장이 농사짓는 거 말고 마을을 위해 다른 일을 좀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마을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니까 이장인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체험마을이 뭐여? 옆 마을에서 하는 거 말하는 거여?”

“네, 우리마을 어르신들이 언제까지 옆 마을에 가서서 일하실 순 없잖아요.”

경기도 양평군 어물리체험마을에 있는 박봉철 이장(64)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다. 주 농사는 수박이었고, 그밖에 벼, 호박, 고구마, 들깨와 이모작으로 마늘과 고추, 콩 등을 키웠다. 곡식이 잘 여문다해서 ‘어물리’지만 산짐승이 오면 산짐승에게, 태풍이 오면 고스란히 비바람에게, 가뭄이면 마른 땅에게 애써 지은 농작물을 뺏겼다. 자연에서 기르지만 자연에게 내주곤 했다.

박 이장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고 생각해 고향을 떠나 본 일이 없다. 농사짓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물리에서 나고 자란 김미혜 위원장이 찾아와 녹색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농촌현장포럼에 참여할 마을분들을 함께 모아보자고. 어릴 때부터 자라던 모습을 봐왔기에 박 이장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은 김미혜 위원장을 잘 알고 있던 터였다.



‘우리마을에도 일거리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데……’



농사짓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미혜 위원장이 찾아와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미혜 위원장은 고향 어르신들이 매일 새벽 옆 마을에 있는 체험마을에 오며가며 품을 들이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당시 어물리체험마을의 주민 몇 사람은 새벽 6시에 지역에 있는 체험마을에 가서 체험진행과 주방일을 하고 저녁 6시에 돌아왔다. 멀리 여주까지 가서 품을 팔고 오는 주민도 있었다.

‘우리마을에도 일거리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데……’
김미혜 위원장은 늘 안타까웠다.

“다른 마을에 손님이 많고 우리마을에 손님이 없고 그러면 좀 저거해”
김 위원장 말대로 마을회의를 소집했다. 좋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현장포럼을 통해 우리마을이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거 할라구 다른 마을을 견학 좀 다녔는데 우리마을처럼 개울이 앞에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이 마을 앞에 있는 마을이 흔치 않았다.

나는 잘 몰랐는데 체험관을 지을 터가 마을 공동소유여서 부지 매입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없단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2년 7월, 드디어 체험관을 개관했다. 우리마을에 손님이 많이 와야하는데……. 다른 마을에만 손님이 많고 우리마을에 손님이 없고 그러면 좀 저거하니까.

여물리체험마을 주민들은 다른 마을에 가서 일거리를 찾지 않아도 됐다. 그동안 옆 마을에서 쌓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체험객을 받기에 완벽하게 준비된 마을주민들이었다.

양평군의 협조도 한몫했다. ‘물맑은 양평 농촌나드리’ 웹페이지에서 체험객들이 예약을 하면 행정 업무부분은 양평군에서 맡아 한다. 덕분에 마을에서는 순수하게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만 신경썼다.

군에서 행정 업무부분과 홍보, 웹페이지 관리를 하는 것에 따른 장단점은 있었다. 그 혜택이 여물리체험마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평군 관할 체험마을은 현재 21곳. 특히 여물리체험마을은 신규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체험객을 모을 매력적인 프로그램과 경쟁력 확보가 중요했다.

체험객의 마음을 아는 세심한 배려, 다시 오고 싶은 마을

여물리체험마을이 체험객으로 북적이는 날은 한달 평균 15~20일 정도.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평일에는 학교에서 단체 체험객이 온다. 여물리체험마을의 특징은 가족단위로 온

체험객이 다시 찾는다는 것. 위원장과 사무장이 여성이다보니 체험마을을 찾는 또래 주부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한 번 온 주부 체험객은 다음에 친정식구들과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 누구보다 까다로운 대한민국 주부들의 마음을 잘 헤아린 덕이다.

욕심을 부려 많은 체험객을 받지 않는 것도 원칙으로 했다. 체험의 질이 떨어지면 체험객들이 다시 찾지 않고, 좋지 않은 이미지는 다음 체험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홍보활동에 특별히 힘을들이진 않았다.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사진을 맘껏 찍게 하고 SNS에 올려달라고만 주문했다.



여물리체험마을은 신규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체험객을 모을 매력적인 프로그램과 경쟁력 확보가 중요했다



그동안 옆 마을에서 쌓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체험객을 받기에 완벽하게 준비된 마을주민들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다리가 성치 않았는데 6년 동안 이장일 하면서 다리를 세 번이나 다쳤다. 깜깜한데 민방위 쪽지가 나와서 전 해주러 갔다가 땅이 푹 꺼진 줄 모르고 발을 헛딛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 나뿐만 아니라 마을에 노인들이 많아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자매결연 맺은 사람들이 와가지구 우리마을에 필요한 거를 설치도 해주고 일도 많이 도와줘서 고맷다.

체험마을을 하면서 얻는 소득이 눈에 보이자 주민들은 더 열심이다. 마을에서 생산한 것으로 체험객을 위한 밥상을 차린다. 동네 거를 팔아주니까 좋은 거다. 처음에 반대하던 주민들도 다른 마을 가서 보고 오더니 마음이 바뀌었다. 군에서 자주 와서 보고 가는 거 보니까 우리마을이 뭔가 잘 하기는 하는 것 같다.

여물리체험마을은 처음 6개월 동안 체험마을을 운영하며 올린 소득이 1억 2천 5백만 원. 올해는 2억 원을 예상한다. 경기도 처음으로 체제형주말농장 시설도 갖추었다.



마을주민들이 푹푹 뭉쳐 꾸러기는 덕에 군 지원이 활발한 편이다. 로컬푸드와 팜마켓 사업도 계획 중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천천히 단계를 밟아 가고 있는 것. 여물리체험마을에는 이제 일거리를 찾아 뿔뿔이 옆 마을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없다. 매일 웃는 얼굴 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만 있을 뿐이다.



양평
여물리체험마을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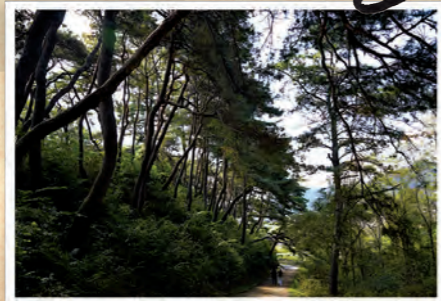
여물리개울

마을 입구에서 반기는 것은 여물리 개울이다. 체험객들은 이 개울에서 송어잡이 체험을 하며, 잡은 송어는 그 자리에서 직접 회를 떠서 먹을 수 있다. 송어는 여름에 먹어도 탈이 없는 여류라 추운 겨울만 빼고는 송어잡이 체험이 가능하다. 평소에는 마을의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이기도 하다.



여물리체험마을은 바쁘게 체험일정에 쫓기듯 마을에 머무는 것보다 친구집에 놀러오듯 쉬었다 갈 수 있는 마을을 지향한다. 마을을 둘러볼 수 있도록 야트막한 동네 앞산을 산책코스로 정했는데 소박한 오솔길이 운치를 더한다. 산책길을 다 도는데 소요시간은 30~40분 정도. 해발이 낮지만 산 언덕에 오르면 마을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마을산책길



여물리
서낭당 &
양평군
현충탑

여물리체험마을에는 펜션, 인조축구잔디장과 체육시설처럼 현대적인 건물이 있는 한편, 마을의 전통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서낭당과 현충탑이 있다. 매년 음력 10월 15일에는 서낭당 앞에서 마을축제를 여는데 마을의 안녕을 비는 풍습이 지금까지 내려온다. 재밌는 것은 서낭당에 모셔진 신이 여신이라 예부터 남성만 접근할 수 있고, 제물로도 수태지만 쓴다고 전해지는 것이다.



양평군 현충탑

○관리번호 : 15-2-3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산1면지
 ○건립년월일 : 1984년 8월 8일 (현 위치 이전일)
 ○건설자 : 청운면민 일동
 ○면積 : 기단높이 1.6M, 탑높이 3.7M
 ○건설개요 : 1950년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조국을 수호하다
 희생하신 박종만 육군소령 외 61위 영령의 애국충절을 기리고자
 유족의 뜻을 모아 공민자를 건립하였으나 노후됨에 따라 1984년
 8월 8일 청운면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현 소재지에 재 건립하고
 현충탑으로 명명함.

한눈에 보는

여물리체험마을의 성공 노하우 경기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윤원근



준비된 주민 역량

여물리체험마을의 주민들은 체험마을이 운영되기 전 옆 마을에서 하는 체험마을에 참여해 체험진행과 주방조리 등의 서비스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 전통장류 등의 식품조리 분야를 전공한 김미혜 위원장은 농산물 가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 체험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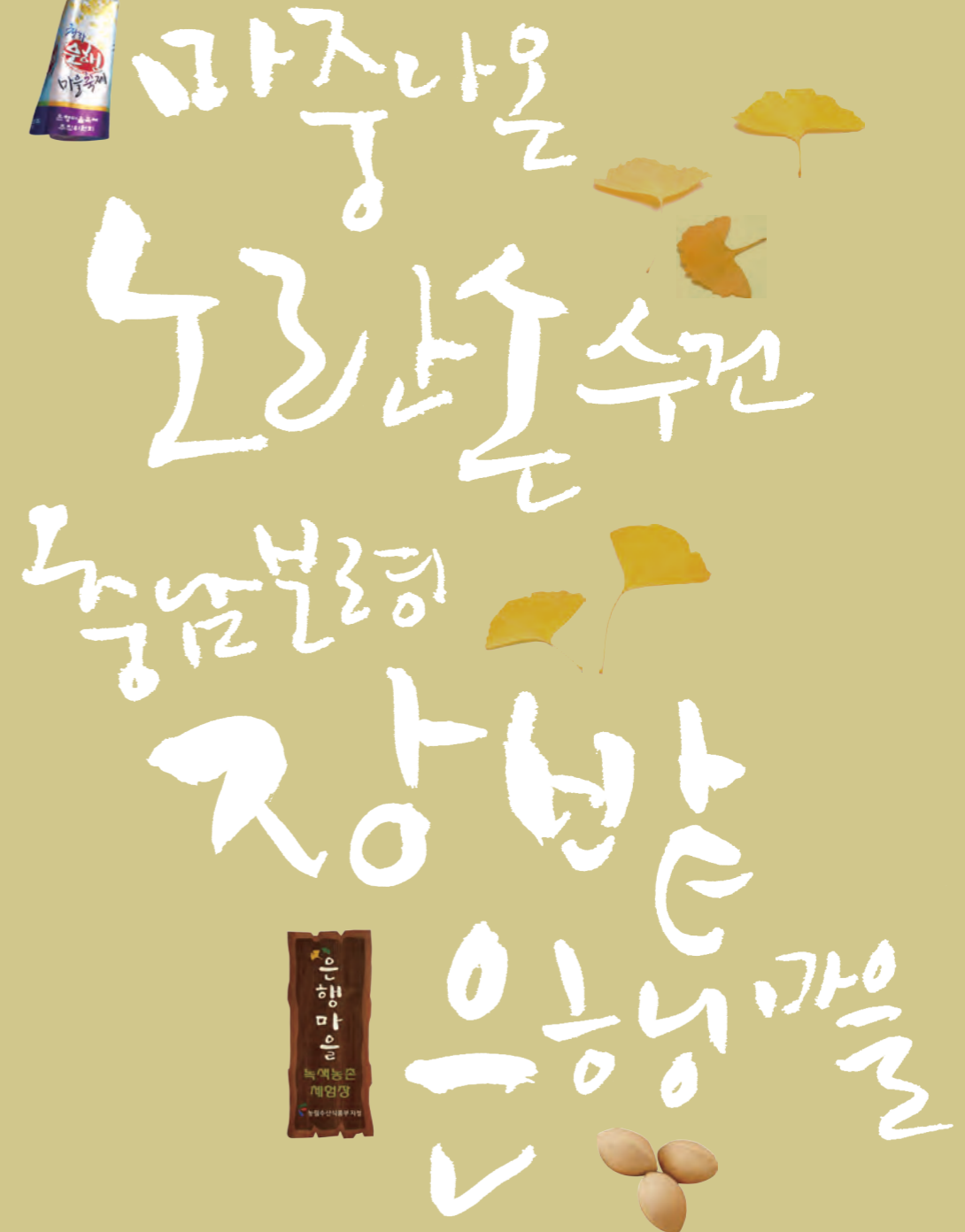
체험객 맞춤형 감성 서비스

농촌체험마을을 찾는 주 고객은 주부. 여물리체험마을의 운영위원진도 주부의 비율이 높다. 체험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부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소통이 이루어졌기에 섬세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체험객 맞춤형 서비스는 다른 마을에서 간과하는 차별화된 경쟁력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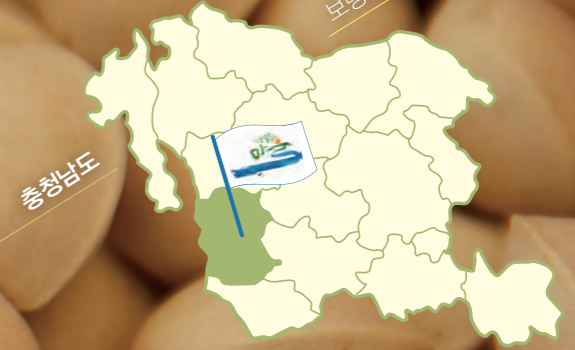
양평군 체험마을 지원 시스템

양평군은 '양평 농촌나들이'라는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체험마을의 발굴, 프로그램의 개발, 회계 및 공동 마케팅 등의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전문화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와 주민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성을 갖춘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은 체험 마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옛 이야기를 잠시 빌리자면, 참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묶어 놓은 것은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였다. 기다림을 선물로 승화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충남 보령 장발 은행마을에도 있다. 3천 그루의 은행나무가 노란 불을 켜면 마을 주민들은 도시민을 기다렸고, 도시민들은 마을 풍경과 하나가 된 채 한 아름 추억을 선물 받았다. 마을 폐교에도 봄이 찾아왔고, 이제는 사계절 내내 도시민들이 찾는 마을이 되었다.

보령시 청리면 장항리 일대



3천 그루의 은행나무가 노란색 불을 켜는 마을, 100년 넘는 이야기를 축제로 풀다

보령 장발은행 마을



우리마을의 색깔은
선물 이에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식 이장
 충남 보령 장발 은행마을

인원 적어 문 닫은 폐교, 중국산에 밀린 토종 은행

“이장님. 학교가 정말 문 닫는 거 맞대유? 아쉽네유.”

“나두 그류. 6개월이었지만 내가 장현분교 1회 졸업생이었잖여.”

“머, 다닐 아들이 있어야지. 마을에 애들 울음소리 안 난 지 오래 됐잖유.”

“노인들만 있으니까 농사 짓기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여. 널 모레면 환갑인 내가 젊은 층에 속하니까 말 다 했지 뭐.”

우리마을은 100살도 넘는 은행나무가 3천 그루나 있다. 나 어릴 때만 해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고, 은행을 판 돈으로 우리를 키우고 그랬다.

우리마을에 은행이 많은 이유는 까마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마을을 감싸는 오서산에는 까마귀가 많이 살았는데 용이 여의주 물고 하늘로 오른 게 까마귀 눈에는 좋아보였는지 은행알을 여의주라고 여겨가지구 여 와서 키우면서 마을에 은행나무가 많아졌다 혀다. 여튼 100살도 넘게 묵었으니 마을에서는 은행나무를 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가을이면 은행을 팔아 번 소득도 있고, 원체 오래된 나무들이라 조상님 생각을 해서 한 그루도 베지를 안했다.

근디 중국산 은행에 밀려가지구 아주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한 4~5년 전까지만 혀두 그랬다. 갖고 나가도 팔리지를 않아. 1991년 문을 닫은 폐교처럼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거지. 그런데 우짜된 일이지 이게. 참. 인생사 새옹지마여.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에 사는 마을주민 삶에서 은행나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마을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은행나무는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도 나이가 많다.

마을 은행나무에 얽힌 전설에는 마치 전래동화처럼 ‘용’이 등장할 정도. 박근식 이장(58)은 마을이 잘 살게 된 것이 은행나무 덕이었다고 말한다. 30여 년 전만 해도 은행은 고소득 작목이었다. 마을주민들은 은행을 팔아 자녀들 학비에 보탬다.

그러다 10여 년 전, 마을주민들은 더 이상 은행을 팔지 않았다. 중국산 은행이 대량 수입되었고, 개량 은행이 보급되면서 이 마을산 은행 가격이 툭 떨어졌기 때문이다. 가계에 보탬이 되던 은행이 천덕꾸러기가 되자 마을주민들은 좋았던 시절만 그리워했다.



마을주민 삶에서 은행나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마을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은행나무는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도 나이가 많다



“다른 마을에는 폐교를 재활용하고 그러는 가봐유 요즘엔 농촌에 와서 벼 베고 이러는 거 체험해서 돈 버는 게 있다는디 우리마을도 해볼까유?”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시작, 녹색농촌체험마을 탄생

“여기 좀 봐봐유. 은행도 이제 안 팔리고, 마을엔 어르신들만 남았잖여유. 이렇게 살다가는 학교처럼 마을이 그냥 문 닫을 거 같아 걱정어유. 그럴 순 없잖여유.”

“그럼 뭐 우짚디여. 방법이 있간?”

“관에 가서 마을 이장단들 이야기를 듣구 왔는디 다른 마을에는 폐교를 활용하는 가봐유. 요즘엔 농촌에 와서 벼 베고 이러는 거 체험해서 돈 버는 게 있다는디 우리마을도 해볼까유? 학교 건물도 있고 한디. 학교를 저렇게 방치해둘 순 없잖유.”

“그러. 서울서 대학생들 봉사활동 왔을 적에 잠자리도 만들어 주고 좋제. 와서 도와줬는디 잠자리 불편할까봐 미안허구 그랬어. 저거 그냥 뒤서 뭐하간?”

“나도 그라. 우리마을이 옛날엔 장발이었자네. 넓은 밭이라구 말이여.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너무 행혀. 전처럼 사람들 와서 복잡복잡하고 그러믄 좋겠구먼.”

이야기를 꺼내자 어르신들도 찬성 의지를 보내며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둘씩 꺼냈다. 학교가 문을 닫은 지 19년만인 2009년, 마을주민 총회를 열어 학교를 농촌체험마을 본부와 체험객 숙소로 만드는 것에 찬성했다.



주민들과 다른 마을에 현장견학도 가고, 교육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한 학교에서 본격적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1년 7월이었다.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은행마을이 구축되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짜여졌다. 농촌체험뿐 아니라 도농교류 자원 봉사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

일손이 부족한 마을에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일손을 도와 주는 일이 체계적으로 자리잡아갔다. 어느 마을보다 도시민들이 찾는 마을이 되며 도농 간 상생교류하는 마을로 변모해갔다.

입소문을 타고 마을의 아름다운 은행나무 군락지는 관광지의 자원으로 새움을 입었다. 가을이 되면 사진 동호회인들이 알음 알음으로 마을을 찾았다. 마을주민들은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성공적인 마을축제, '은행을 털어 대박 난 마을이야기'

“체험마을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아요. 다행히 마을주민들 협조도 좋구말려요. 우리 마을이 뭔가 할 게 많은 데였구만요.”

“우리는 만날 봐서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우리마을 은행나무보고 멋지다고 하대.”

“이번에 전국을 다녀보니까, 우리 부락만큼 은행나무가 조성된 데가 없던디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녀봐도 없더라고.”

천덕꾸러기가 되었던 은행나무를 보러 도시민들이 많이 왔다. 관광마을로서 마을을 더 부흥시킬 만한 것이 없을까. 마을주민들은 다시 모였다. 마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색깔있는 마을 만

들기 농촌현장포럼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았다. 주민들이 머리를 모아 마을의 자원을 찾았다.

단연 우리마을 최고의 자원은 은행나무였다. 사람들이 은행나무를 많이 보러 오니까 축제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왔다. 은행마을축제라. 뭔가 근사했다.

은행을 가공해 먹거리를 개발해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좋겠구만.

“은행으로 뭘 할 수 있을까유?”

“동동주 만들어 먹잖여.”

“또유. 남들이 못허는 거유.”

“은행잎은 옛날에 약초로 썼는데.”

“이번에 전국을 다녀보니까 우리 부락만큼 은행나무가 조성된 데가 없던디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녀봐도 없더라고”



사람들이 은행나무를 많이 보러 오니까
축제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왔다
은행마을축제라 뭔가 근사했다



은행마을주민들은 곧 은행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라은행마을축제'를 준비했다. 2012년에 열린 제1회 청라은행마을축제는 그렇게 개최되었다. 은행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뽐낼 무렵, 사람들은 마을에 와서 은행을 즐기고, 음악회도 즐기며 은행나무와 함께 가을 풍경을 만들었다. 은행 동동주, 은행 국수 등 은행으로 만든 맛있는 먹거리도 두루 만났다.

첫 번째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청라은행마을축제'를 충청남도 지역의 자랑할 만한 관광자원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2013년, 3만 여 명이 다녀간 두 번째 축제를 개최하며 은행마을 축제는 명실공히 내실 있는 지역 축제로서 자리매김했다.

마을주민들도 운동장에 모여 함께 축제를 즐겼다. 아울러 축제를 준비하며 은행 식초를 비롯해 은행을 이용한 조미김 등 은행 가공품들을 개발해 판매하기도 했다. 은행마을은 축제의 주제인 '은행을 털어 대박 난 마을이야기'처럼 이제 다시 '좋았던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이다.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본부와 체험객 숙소 등을 꾸민 은행마을의 체험관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 특이한 것은 어느 숙소처럼 1호실, 2호실 등 숫자로 방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여우별', '재님이', '솔수평이' 같은 우리말 이름을 달아주었다는 것.

1호실에 묵었던 체험객과 '여우방별'에 묵었던 체험객이 간직하는 추억이 같을 수 있을까. 은행마을을 찾는 도시민들이 늘어가는 이유는 추억을 선물처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에 꽃핀 노란 손수건처럼 잊지 못할 선물 말이다.



보령 장밭은행마을의 이모저모



충청남도 문화재 제291호로 지정되어 있는 신경섭 고택은 사진 동호회인들이나 마을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다. 은행나무가 둘러싼 담장 안에는 조선 후기 가옥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청라 신씨가 많이 살았다는 흔적을 보여주듯 신석봉의 효자문이 있다. 한때는 양조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 모습을 찾기 어렵다.

신경섭
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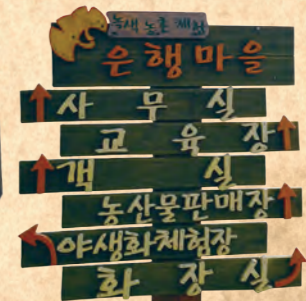
1991년 폐교된 초등학교를 20년만에 리모델링하여 은행마을체험장으로 재탄생시켰다. 체험마을 운영본부와 동살, 여우별, 재님이 등의 이름이 있는 객실이 있으며, 농산물판매장, 야생화체험장과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운동장과 교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고향을 떠난 40,50대 이상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은행마을
체험장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충청남도 지역의 자랑할 만한 관광자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청라은행마을축제는 2013년, 3만 여 명이 다녀가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평균 수령 100살이 넘는 은행나무 3천 그루가 마을을 온통 노랗게 물들이는 모습이 장관이다. 시골초등학교의 정겨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는 주 축제장에서는 은행을 가공하여 만든 막걸리, 과자, 국수 등을 파는 장터가 열린다.



청라
은행마을
축제



한눈에 보는

은행마을의 성공 노하우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배성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은행마을은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를 통해 지원을 받았다. 체험관 간판이나 팻말, 숙소 인테리어, 외부 경관조성에도 여성 예비사회적기업, 서초구 자원봉사단 등이 참여하여 제작을 도왔다. 은행마을 운영위원진은 도농 교류활성화의 일환으로 농촌봉사활동에 구두점을 찍고 그 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보태고 봉사자들은 마을에 머무는 동안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등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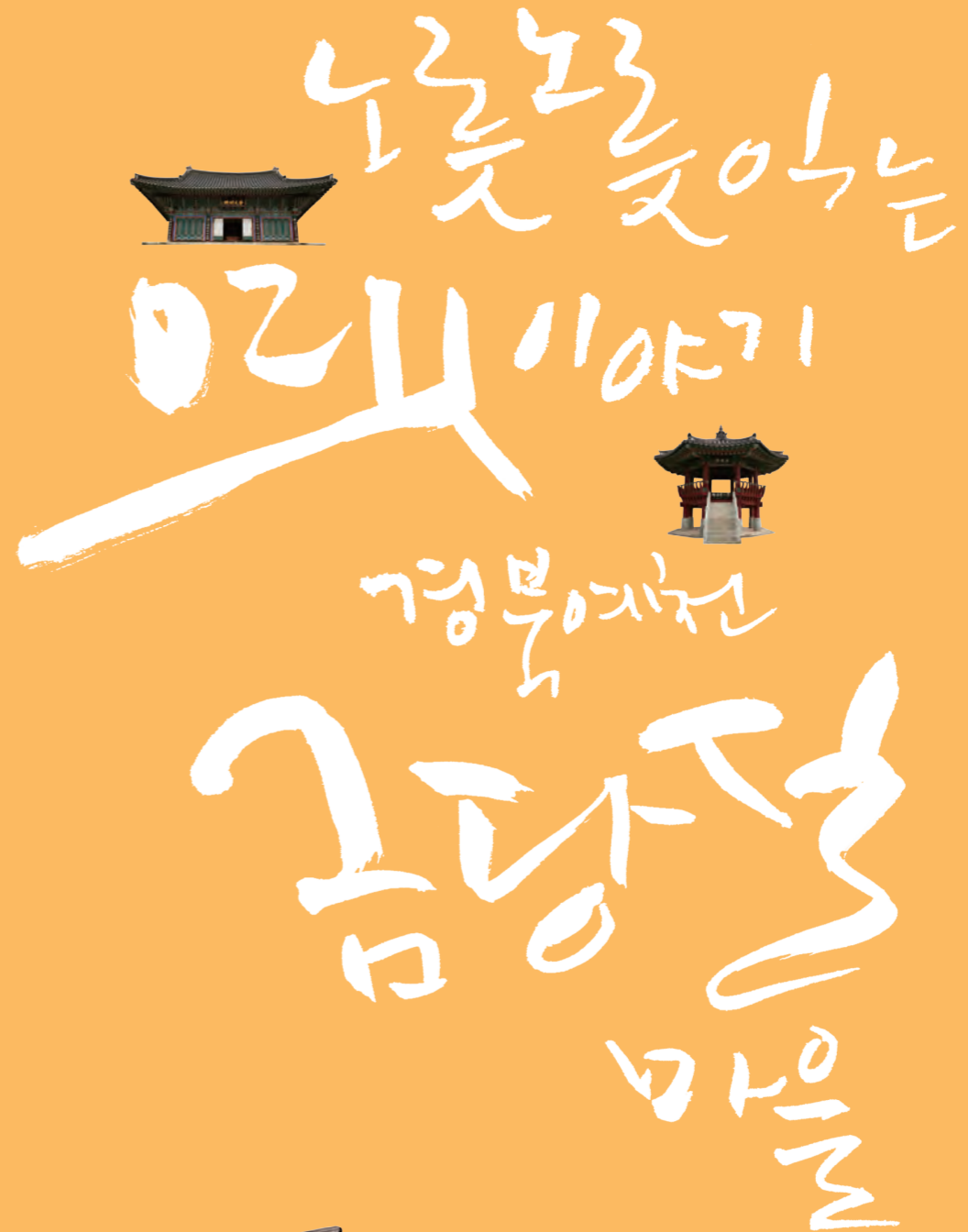
자원활용 상품개발

은행마을은 선대부터 은행나무를 심고 가꾸어오면서 살아온 후손이 함께 살고 있어서 은행나무와 은행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 그런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발한 은행관련 각종 상품이 다양하다. 이로써 마을의 수익이 생겨 주민복지를 위한 정비를 할 수 있으며, 주민은 소일거리를 통해 수익이 생기게 되었다.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관광마을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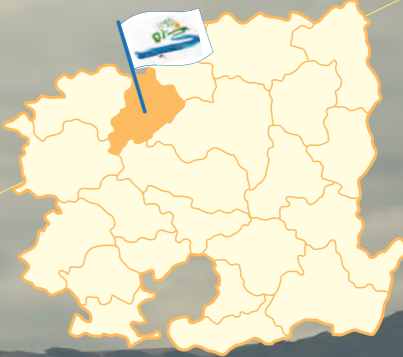


체험운영 전문인력 구성

은행마을이 체험마을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진의 역할이 크다. 폐교를 아기자기하게 리모델링하여 체험관으로 재탄생시킨 것부터 농촌자원봉사 연계 활동까지 은행마을 운영위원진들은 마을사업 운영만을 전문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밭길 머무는 곳, 손길 닿는 곳마다 역사가 숨을 쉬는 경북 예천 금당실마을. 전통가옥과 문화재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만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였던 마을주민들은 마을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 마을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찾아왔다. 금당실마을이 고즈넉한 듯 하면서도 복잡복잡대고, 멈춰있는 듯 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이유다.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곡리 일대

하늘이 정한 심승지, 조상의 얼이 머무는 그 땅에 주렁주렁 맺혀있는 과거와 현재

예천 금당실마을



우리마을의 색깔은
옛날이야기 아인교~



“우리마을이 정말 특별한 곳인가? 나는 왜 몰랐제”

“이 마을에 사시니 좋으시겠어요. 동화 속에 나오는 마을 같아요.”

“정말 이곳으로 이사 오고 싶어요.”

사람들이 우리마을을 찾으면 하나같이 그란다. 마을이 이쁘고 아름답따꼬. 지금은 더 내도 글코 우리마을 주민들도 하도 들어가 뿌듯하게 자부심 느끼고 있지만서도 첨엔 고마 신기하고 그랬다.

우리마을 자랑을 뭐부터 시작하지. 심승지부터 하까. 그래 마 좋다. 그래야 이야기가 술술 풀리지 않겠나. 정감록에도 딱 나와있는기 우리마을이 심승지라 카테. 심승지는 거 뭐꼬.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전쟁이나 천재지변, 질병, 기근이 없는 데라꼬 조선 태조도 도움으로 이 마을을 정하실라고 그랬다카는데.

그때로 치면 여가 오지 아이가. 산골 오지. 워낙에 콩콩 숨카놔야지 마을을. 농지가

풍부해가 기근도 면하고, 산들이 요래 마을을 주욱 둘러쳐 있어가 외세 침략도 없고. 어릴 때 전쟁 났을 때도 요 1km 옆에 초간정있는 데로 잠깐 갔다 왔던 기 기억나네. 또 뭐 외부로 나갈라캐도 산 고개를 넘어가지고 냇물도 건너야 쓰니 나가는 거가 쉽지도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또 어땠겠노. 어렵게어렵게 들어오고. 질병 같은 기 물어 들어올 수도 없었으니까 역병 같은 것도 안 나고.

오지고 그래가 우리마을이 이래 보존이 잘 되어있지 않았나 싶다. 신문물이라는 걸 받아들이실 수가 없으니 옛것을 보존하게 되고.

박희식 위원장
경북 예천 금당실마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예천 금당실마을의 박희식 위원장(68)은 예천군에서 문화해설사로도 활동 중이다. 마을에 주렁주렁 맺힌 이야기들이 가을날 잘 익은 감처럼 박 위원장의 입 속에서 툭툭 터지는 이유다.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이 이렇게 많은 이들이 찾는 마을이 될지는 박 위원장도 마을주민들도 몰랐다.



‘우리마을이 그래 특별하다 말이가’ 박 위원장은 고향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마을 역사에 대해 단순하게 태어나서 보고, 느낀 것만 알았는데 문화해설을 하게 되면서 마을 원로들에게 설명도 듣고 책을 보고 연구도 했다. 그 덕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많다. 박 위원장이 문화해설을 하게 된 것은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서다. 마을에는 연간 1,500명~2,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그 중 외국인 수도 만만치 않다.

“우리마을주민 모두가 모두가 관광가이드, 문화해설사”
 “뭐 내가 살아봤어야 알지. 사람들이 여 와가 ‘금당실마을, 금당실마을’하니까 우리 마을이 좋은 거구나 하는 거 아이가.” 한 마을에 오래 살모 객지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비교가 안 되서 우리마을 특징을 잘 모른다. 근데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도 실지로 자기 마을을 잘 아는 데서 시작

하는 거 아이가. 오래되고 낡았다고 해가 무작정 새로운 것만 받아들이라카모 무분별하게 망가뜨려서 이도저도 안 되는 기라.

금당실마을에는 조선시대 전통가옥이 20채 정도가 보존되어 있다. 기와집은 12채, 초가가 8채다. 민속촌처럼 관람용 가옥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주민들이 사는 집이다. 주막도 있고,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조상의 생가도 있다. 가옥들은 워낙에 오래되어 2003년부터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보수를 시작했다. 금당실마을을 찾는 이들을 반기는 백일홍과 천일홍은 마을주민들이 식재했다. 스스로 마을의 색깔을 찾아낸 금당실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찾는 데 열심이었다. 고택 앞에 세워진 안내판은 마을 주민들의 고증으로 만들었다.



우리마을의 고인돌처럼 몰라가지고 묻어버리는 기 많은디 우리마을이 있다는
거는 마을을 찾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한테도 좋은 기 역수로 많다고 본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살던 마을이라 유교문화도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우리마을 와가
예를 다시 체험하고 하른 이기 우리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색깔있는 체험이 되지
않을까 한다.

금당실마을을 한 눈에 보기 위해서는 오미봉공원에 올라야 하는데 이 오미봉은
다섯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 해서 오미봉이라 전해진다. 작자미상이나
이 마을이 얼마나 이야기를 사랑하고 간직하는 마을인지는 마을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오미봉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마을이 있다는 거는 마을을 찾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한테도 좋은 기
역수로 많다고 본다

죽림청풍 오미봉에 있
으면 마을 뒷산 대숲마
음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아름답다.

용사효종 용문사에서
은은한 종소리를 오미봉
에서 들으면 아름답다.

선동기원 오미봉에서
볼 때 마을 앞 선동 골짜
기에서 뭉게뭉게 피어오
르는 구름이 아름답다.

아미반월 아미산에 떠
오르는 보름달 모습을
오미봉에서 바라보면 아
름답다.

유전모연 오미봉에서
바라보는 아랫마을 유전
마을 뒷산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



예천 금당실마을의 이모저모



마을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오미봉공원. 금당실이란 이름이 연꽃위에 떠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인 만큼 이곳은 연못에 떠있는 연꽃을 상징한다.

오미봉공원

초간정은 조선 중기의 학자 초간 권문해 선생이 지은 정자다. 그는 조선 시대 최초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대동운부국록 20권을 저술했다. 자연 속에 쓸쓸한 듯 호젓하게 세워진 정자를 보면 당시 학자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다.



초간정

우리나라의 용문사라는 이름의 절은 총 세 곳. 양평에 있는 용문사가 머리고 남해에 있는 용문사가 하체라면 예천에 있는 용문사는 허리에 위치해 있다. 예천 용문사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회전식으로 되어 있는 윤장대가 있는데 이것을 돌리면 팔만대장경 불경을 다 읽은 효험이 있다고 전해진다.

용문사

금당실송림

서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방풍림으로 조성되었다는 금당실송림. 수령으로 보아 2~3백년 된 소나무들이 3~4천 평 대지에 자라고 있다. 마을오솔길처럼 구불구불하게 자란 것이 특징이고 안개 낀 날 출사지로 사랑받고 있다.



한눈에 보는

금당실마을의 성공 노하우

경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장우환



이야기로 접근한 마을관광

금당실마을은 문화재 등 볼거리가 많은 마을답게 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이야기로 다가간다. 마을출신의 문화해설사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 가옥마다 꽃힌 팻말에는 가옥의 유래와 현존의 의의 등이 보기 쉽게 적혀 있다. 마을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주민 모두가 알 수 있게 공유하여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했다.



옛것의 보존

금당실마을의 전통가옥은 관람용 가옥이 아닌 실제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민가이다. 전통 자원 보존을 위해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전통을 유지하는 한편, 각자가 민가를 관리한다. 마을에 관광객이 찾게 되자 마을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으며 외부인에 대한 친절도도 매우 높다.



특색있는 홍보수단 활용

금당실마을은 <영어완전정복(2003)>, <나의 결혼원정기(2005)>, <그해 여름(2006)> 등 각종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면서 마스크를 통한 직간접적 홍보를 했다. 현재는 관광객들의 블로그를 통한 홍보효과가 크다. 시대 흐름에 맞춘 홍보 수단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증명하는 사례다.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수기집

발행인 이동필
총괄 김정희
기획 이진, 박종윤, 신종갑, 윤정식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044) 201-1564
편집·디자인·제작 (주)헤드원컴퍼니
02) 6338-1704
글 배미용
사진 THE Studio 박중훈
인쇄 아주공사
발행일 2014. 1. 20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값 25,000원